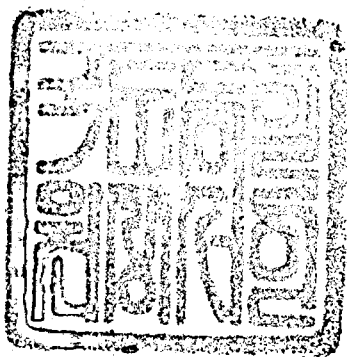


南北高位級會談

第6次 豫備會談 會議錄

1990. 2.



國土統一院
(南北對話事務局)

〈目 次〉

1. 一般事項	3
2. 會議錄	7
附錄：代表團 記者會見	113

1. 一般事項

가. 日 時 : 1990.1.31 (水) 10:00 ~ 13:00

나. 場 所 : 板門店 北側地域 「統一閣」

다. 雙方 代表團

우 리 側	北 側
<p style="text-align: center;">〈首席代表〉</p> <p>宋 漢 虎 (國土統一院 次官)</p>	<p style="text-align: center;">〈團 長〉</p> <p>백 남 준 (정무원 참사)</p>
<p style="text-align: center;">〈代 表〉</p> <p>金 三 勳 (外務部 美州局長)</p> <p>朴 鍾 權 (國防部 合同參謀本部 局長)</p> <p>廉 弘 喆 (大統領 秘書室 政務秘書官)</p> <p>金 保 鉉 (國務總理室 行政調整室 審議官)</p>	<p style="text-align: center;">〈代 表〉</p> <p>유 성 철 (정무원 실장)</p> <p>최 우 진 (외교부 국장)</p> <p>최 성 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p> <p>김 영 철 (인민무력부 부국장)</p>

會 議 錄

2. 會議錄

〈雙方代表入場 및 人事交換〉

南(宋漢虎) : 앉읍시다.

北(백남준) : 앉읍시다.

南(宋漢虎) : (記者들 握手要請에 대해) 자 人事를 합시다.

北(백남준) : 자.

(記者들 寫眞撮影)

南(宋漢虎) : 됐어요? (記者들을 向해)

우리는 오늘 눈(雪)이 많이오고 道路가 다 얼음이 많이 얼어가지고
普通 한時間이면 왔었는데 오늘은 한時間 한 40分 걸렸습니다.

北(백남준) : 예, 오늘은 좀 不便했겠습니까?

南(宋漢虎) : 예, 뭐 좀 車타고 오는데 지루하더군요.

北(최성익) : 눈이 많이 왔습니까?

南(宋漢虎) : 그때 氣象臺 發表를 보면 서울의 경우는 20cm 이상 되었고
저쪽 嶺東地方 저 江原道 같은데는 1m가 넘게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경우는 그러니까 20cm가 21年만에 처음이다 하
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北(백남준) : 平壤은 25cm.

南(宋漢虎) : 아, 눈이 많이 왔네요?

北(백남준) : 예, 25cm 내렸는데 눈이 내리면서 이렇게 녹았어요. 그래 그
것도 역시 그저 高溫現狀인데 그저 오늘 낮에 제일 높은 氣溫은 零度

豫見되어 있습니다.

北(최우진) : 이 開城地方.

南(宋漢虎) : 예, 오늘 아침에는 서울地方은 零下 2度라고 지금 그렇게 이 야기를 하던데.

北(백남준) : 氣溫이 지금 零度니까 그것도 그저 高溫現狀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나라에서 이제 1987年, 1987年부터 3年 以上이 되는데 異常氣候 結果로 이제 高溫이 繼續되거든요.

그러니까今年 그래 우리 朝鮮에야 뭐 正月달이 제일 추운때 아닙니까? 제일 추운 때인데 그런데今年 正月 닷새날이 아마 小寒이죠? 小寒인데 그날 最低氣溫이 零下 2度였습니다. 그러니까 平年에 比해서 10度가 더 높았던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우리 氣象觀測上 한 百年內에今年이 그저 最近이 제일 氣溫이 높다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 學者들은 뭐 여러가지 自己나름의 說明을 하는데 많은 學者들은 이 高溫現狀이 지금 人間의 經濟活動에 의해서 「탄산가스」라든가 「메탄가스」라든가 이 가스 농도가 急激하게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로부터 超來되는 이 溫室效果, 요 溫室效果의 結果다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이 高溫現狀이 더 加重되리라고 그러는데 世界的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 生態系에 아주 影響을 미치리라고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千里 물길工事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西海關門에 찬 그 고인물 그 다음에 水力發電所에서 고인물이 이제 그걸 이제 千里 물길에 그 循環시키기 위해서 원래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水利化는 다 됐는데 이번에는 그 千里길에다 이제 물을

집어 넣어서 循環시키죠. 그렇게 하면 그저 아무리 가물어도 安全하게 農事를 지을 수 있죠. 그래 그저 目標는 그저 새 農事前에 끝내자 그러는데 가까이 끝날것 같아요. 가까이 끝날 것 같고.

그런데 이 高溫現狀은 뭐 우리 人類에게 그밖에도 여러가지 影響을 미치리라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 北南關係에서는 이런 高溫現狀이 나무랄 것 없이 좀 바람직 한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南(宋漢虎): 그래요? 바깥 날씨도 다 이렇게 눈도 내리고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오늘 會談을 잘 해가지고 따뜻하고 和氣靄靄한 가운데 좀 進行을 하죠.

北(백남준): 예, 예.

南(宋漢虎): 그리고 뭐 오늘 또 이 새해, 90年 새해를 맞아서 잘못된게 없이 뭐 우리 백선생 이제 금년 더욱 健康하시고

北(백남준): 고맙습니다.

南(宋漢虎): 또 公私間에 즐거운 일이, 매우 보람있는 일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다른 代表들께서도 뭐 좋은 일이 많고 우리 김대표 특히 이번에는 軍隊에서 進級할 「케이스」 없습니까?

北(김영철): 아니 90年度에 그쪽에서 새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참 좋겠습니
다.

南(宋漢虎): 그리고 그저 昨年 年末에 보내준 사과하고 「신덕샘물」 잘
받아서 나눠 먹었습니다.

北(백남준): 예, 뭐.

南(宋漢虎): 「신덕샘물」은 내가 아주 잘 요긴하게 아주 썼어요. 마침
지난 1月2日날 平安南道 道民들의 新年 賀禮式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마시지 않고 보내주신 것을 다 고스란히 그 新年賀禮式에 보내 가지고 거기에 參席하신 분들이 故鄉물을 맛보도록 보내 주었더니 매우 기뻐했어요.

한 700餘名이 參席을 했는데 뭐 量이 그렇게 다 充分하지는 못해가지고 나이많은 順대로 그저 한 200名이 한모금씩 마셨습니다. 마셔가지고 故鄉의 그 물맛을 보면서 『故鄉생각이 더욱 간절히 난다』고 이저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北(최우진) :그것 마시면서 아마 『빨리 統一을 해야되겠다』하는 생각도 나셨겠죠?

南(宋漢虎) :아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빨리 故鄉을 가야겠다. 故鄉으로 가는 길이 빨리 뚫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北(백남준) :그래 그저 이거 分斷의 障壁을 마시고 빨리 自由來往하고 全面開放하고 뭐 그러면 뭐 「신덕수(水)」가 量이 적어서 걱정될 것도 없고 …….(一同웃음)

南(宋漢虎) :自由往來하고 社會開放은 우리가 70年代부터 繼續해서 貴側에다 提案했던 것이고 貴側이 다 呼應하면 그것은 뭐 自動적으로 이루어 지리라고 나는 생각해요.

北(백남준) :어?

南(宋漢虎) :問題는 貴側이 自由往來에 대해서 肯定的인 態度를 보여주는 것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거지요 뭐.

北(백남준) :어허 우리는 分斷된 첫날부터 『自由開放하자 全面開放하자』 했는데, 『自由來往하자 全面開放하자』했는데 뭐 좌우간 그쪽에서 뭐 들으니까 그거 『歡迎한다』 그래서 아주 多幸스럽게 생각합니다.

南(宋漢虎) : 그래 그래요. 그래서 아주 빨리 우리가 자유롭게 往來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 그쪽 사과도 맛있던데요? 내가 平壤에 1985年度에 갔을 때보다도 그때 먹던 사과보다 많이 改良된 것 같아요? 그게 어디에서 나는 사과입니까?

北(백남준) : 그저 「황주」.

南(宋漢虎) : 「황주」? 예 거기 옛날부터 「황주」가 사과 名產地죠?

北韓에서는 「황주」하고 咸鏡道の 거기 어디입니까?

北(최성익) : 북청.

北(백남준) : 저기 북청.

南(宋漢虎) : 북청. 예 북청이 사과 잘 되지요.

北(백남준) : 지금은 黃海南道 「과일군」, 「과일군」이라고 해가지고…….

南(宋漢虎) : 「황주」가 黃海南道입니까? 黃海北道입니까?

北(백남준) : 어, 黃海北道.

南(宋漢虎) : 黃海北道죠?

北(백남준) : 예, 예. 그리고 黃海南道에는 「과일군」이 있어요. 한개 郡이全體가 果樹農事를 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저 世界的으로 有名하다는 그런 사과·배를 비롯한 과일류들을 심고 있어요.

그다음 전번에 그저 宋先生이 보내준 굴도 먹어 봤는데 그저 굴맛은 北의 굴이나 그 앞의 굴이나 뭐 다름은 없더구만요. 黃海道는 굴 많이 生産합니다. 그거 아주 단연…….

南(宋漢虎) : 아 그래요? 그것 뭐 이렇게 「비닐」에다가 生産합니까?

北(백남준) : 예. 지금 그저 지금은 대체로 그저 溫室 그런…….

南(宋漢虎) : 「비닐 하우스」로?

北(백남준) :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괜찮게 달리고 그래 그저 차츰 그걸 이제 좀더 氣候에 익숙시켜 가지고 바깥에다 내야 하는데 잘 돼요.

거 본래 뭐 宋先生 아시겠지만 저 兩江道 白頭山 밑 같은데야 옛날에는 사과도 안되지 않았습니까? 복숭아도 없고? 그런데 그저 解放後에는 그쪽에서는 뭐 사과·복숭아 다 심습니다. 그래서 그것 學者들이 그저 다 改良했어요.

南(宋漢虎) : 우리는 대체로 濟州道에서 곶이 나죠. 濟州道에서 이제 普通 그저 年間 한 50萬톤 정도 生産하는데 去年의 경우는 아주 豊年이 되어가지고 한 70萬톤을 生産했어요.

그런데 뭐 豊年이 되어 가지고 生産業者가 價格이 좀 適正水準을 維持하면 좋은데 예년보다 오히려 더 暴落을 해서 별재미는 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北(백남준) : 거 人民들은 좋아 할거구?

南(宋漢虎) : 그래서 事實 濟州道の 감귤 生産者들간에 이런 말을 해요. 한 2萬톤만 貴側에다가 이제 보내면 貴側 住民들 한 世帶當 한관 程度씩 돌아간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한관程度 한 世帶當.

그래서 이제 빨리 우리 南北間에 物資交流의 길도 트여 가지고 그렇게 貴側에다가 이제 감귤도 보내서 國民들이 싼값으로 감귤도 맛볼 수 있고 또 우리 生産業者들은 또 價格暴落도 좀 막고 하면 서로 相互利益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北(백남준) : 아니 거 뭘 하려고 아니 그저 바늘귀만한 그런 저 뭇인가 이제 그러니까 곶이나 뭐 果實貿易通路만 열려고 그래요? 全面的으로

열어야지, 全面的으로 들 열어야지.

南(宋漢虎): 아니 글썽 그러니까, 우선 濟州道의 이 감귤 生産業者들로서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한번 빨리 그런 物資交流의 길이 좀 트이면 좋겠어요.

北(백남준): 가장 全面的으로 開放하고.

北(최우진): 거 障壁이 없어지게 되면 그게 더 빨라질 수 있겠는데 말입니다?

南(宋漢虎): 그렇죠. 그것 障壁이 없어야 아주 좋지요. 自由往來하고 그런데 뭐 가끔가다가 여러분들 自由往來하면서 말로는, 말로는 自由往來 하자면서 實際 行動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 같애?

北(백남준): 그건 어떻게 들고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南(宋漢虎):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가령 저 뭇인가 離散家族들 故鄉 訪問團 交換하자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故鄉까지 가서 直接 家族들과 親戚들을 만나자 그랬더니 굳이 뭐 서울하고 平壤으로 뭐 制限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 自由往來를 한쪽에서는 主張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좀 理解하기가 힘들다 그거예요.

北(백남준): 그거야 내가 알건데는 赤十字團體들에서, 赤十字야 원래 그 自由往來問題, 離散家族의 自由往來問題 提起됐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전에 象徵적으로 故鄉訪問團한다 그렇게 合意가 되어가지고 하는걸로 아는데 저 宋先生 가만히 보니까 離散家族 얘기는 그저 會談 때마다 하시는데 그런데 그저 이 統一은 지금 統一이 되지 못하고 分斷되어 있는 것은 …….

南(宋漢虎): 나도 뭐야 故鄉을 北韓쪽에다 두고 있으니까 빨리 故鄉에 좀

가고 싶어요. 설날에도 나는 故郷도 못가고 집에서 뭐인가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望郷과 이제 그리움의 恨을 되씹으면서 좀 지냈는데 우선코 빨리 北으로 가는 길이 뚫려가지고 故郷도 좀 가서 다 뭐 省墓도 좀 하고 그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北(백남준) : 우리 朝鮮사람들은 이게 半萬年의 悠久한 歷史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朝鮮사람 하나가 그저 單一民族으로서 쪼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살고 있단 말예요.

具體的으로 따져 놓고 보면 離散家族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그저 이 統一이란게 分斷이라는게 이것 離散家族뿐만 아니라 이 7千萬의 아픔인데, 예 7千萬의 아픔인데 빨리 그저 이거 自由來往해야 됩니다. 自由來往해서 그저 離散家族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各界各層이 그저 差別없이 制限없이 오고가고 그저 만나고 그저 이렇게 해야 됩니다.

南(宋漢虎) : 뭐 좋습니다. 다 뭐 그것 大歡迎입니다.

北(최우진) : 그래서 이제 뭐 1990年代인데 우리 한번 좀 그렇게 합시다. 對話를 잘해 나가야죠.

南(宋漢虎) : 오늘 우리 對話가 시작된지 이제 근 1년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며칠있으면 1년이 다 되는데 그야 뭐 1년이 가까워 오도록 이것 우리 節次問題 하나 解決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北(백남준) :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南(宋漢虎) : 예.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 나머지 뭐 節次問題는 다 지난번에 合意를 보았고 議題表記問題만 지금 合意를 못보아 가지고 最終合

意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本會談을 마지막으로 이제 다 妥結을 짓고 우리 만나기를 저, 1次 豫備會談이 시작된 滿 1周年이 되는 오는 2月8日에는 우리 이렇게 合意書를 다 署名을 해서 交換하도록 한번 해봅시다.

北(백남준) : 원래야 오늘 合意書에 도장 찍을 수 있는건데 아 전번에 아 니 議程 뭐인가 하면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解消하자」 그 다음에 뭐 나하면 「北과 南사이에 協力과 交流를 多角的으로 하자」 다 合意를 해 놓고 아 그것 文章의 順序를 어떻게 하느냐? 아 그건 明白한건데 그것만 했다면 오늘이야 宋先生하고 나하고 앉아서 도장을 꼭 찍고…….

南(宋漢虎) : 아니 그럼 뭐 전번에 못했으니까 오늘 합시다. 오늘이라도 합시다 뭐.

南(金三勳) : 오늘 되겠네요.

北(백남준) : 잘 될 것 같아요?

南(金三勳) : 예. 成事시키고 膳物로 감귤도 한 2萬톤 보내드리도록 하죠.

北(백남준) : 감귤 2萬톤?

南(宋漢虎) : 아니 더 보내달라면 우리 더 보내드릴게요.

北(백남준) : 어이, 그럼 또 우리 特産物은 한 5萬톤 보낼까? (一同웃음)

南(宋漢虎) : 「황주」 사과 좀 보내주시고 우리 서로 交換을 합시다.

南(金三勳) : 많이 그저 오고가고 왔다갔다 하면…….

南(金保鉉) : 오늘 저 다들 가서 맛 있는 것 좀 해드리고 쉽게 끝날 것 같아서 저는 가방 안 끌르겠습니다. 가방 안끌르고 쉽게 그저 合意하십시오.

南(金三勳) : 나는 내려놓았어요. 올려놓았던 가방 내려 놓았어요.

南(金保鉉) : 별 뭐 難題가 없으니까 오늘은 가방 끌리지 말고 그리고 會談하십시오.

北(유성철) : 그쪽 분들이 대단히 얼굴이 밝고 期待가 큰것 같습니다.

北(백남준) : 記者先生님! 좀 자리 整頓해 주시겠습니까?

北(최우진) : 朴先生, 뭐 설 잘 쇠었습니까?

南(朴鍾權) : 잘 쇠었습니다. 우리 최선생은 어떻습니까?

北(최우진) : 예, 예. 잘 쇠었습니다.

南(朴鍾權) : 예, 그래요?

北(최우진) : 이거 보니까 이게 눈이 이렇게 많이 오면 옛날부터 그 農事가 豊年이 된다고 했죠?

南(朴鍾權) : 옛날부터 보리가 잘된다고 그랬죠 예.

北(김영철) : 金三勳代表, 그 자리에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얘기가? 자리 옮기지 않았습니까?

南(金三勳) : 같은 것이죠 뭐, 外務部內이니까?

北(김영철) : 예? 外務部內죠? 美洲 擔當하실건가요?

北(백남준) : 옛날 記錄들 보면 이저 설날에, 음력설날에 무슨 재앙을 막는다고 그래가지고 말이랑 호랑이랑 닭장에다 붙여놓지 그리고 저 1年 동안 머리를 빗으면서 빠진 머리카락들 모았다가 正月 저녁때에 불에 다 태워버리면서 傳染病을 막는다 그런 風習들이 있는데 전부 그런거 地方마다 다르지만

南(朴鍾權) : 오시는데는 뭐 不便없으셨습니까?

北(최우진) : 예.

南(金三勳) : 최우진 대표도 平和軍縮研究所 副所長 資格을 받으셨더구만?

南(金保鉉) : 그래 놓고 보니 兼職이네?

北(최우진) : 오늘 눈이 많이 오길래 오늘 會談이 잘 될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천천히 합시다.

南(金三勳) : 20 年內의 瑞雪, 大雪이니까 눈이라면 뭐…….

北(최우진) : 어제는 午後부터 눈이 내려서 밤에 많이 쌓였죠.

北(백남준) : 눈이야 원래 옛날부터 눈이 많이 내리면 豊年이 온다. 우리 對話豊年도 오고 그저…….

南(宋漢虎) : 예. 제가 좀 먼저 發言을 할까요?

北(백남준) : 예

南(宋漢虎) :

〈우리側 첫 發言〉

백남준 團長

그리고 北側 代表여러분!

오늘 우리는 雙方 總理를 首席代表로 하는 南北高位級會談을 마련하기 위한 第6次 豫備會談을 갖게 됩니다.

나는 먼저 20世紀의 마지막 年代로 들어서는 1990年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에게 새해 첫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民族은 今世紀에 들어서면서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難關과 逆境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1945年 우리 民族은 가혹했던 日帝植民地 統治로부터 벗어났으나 國土가 南北으로 分斷되었으며, 1950년에는 同族相殘의 처절한 戰爭을 치름으로써

民族内部의 分裂까지 深化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겨레는 지난 40여년간 南北으로 갈라져 서로 反目하고 對決하면서 살아 온 것입니다.

20世紀를 마감하고 21世紀의 밝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참담한 過去를 깊이 反省하고 民族의 和解와 統一繁榮을 이룩하여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다시는 이같은 不幸을 안겨주지 않도록 努力해야 할 것입니다.

貴側도 잘 아는 바와 같이 20世紀의 마지막 年代인 1990年代는 和解와 協力の 새로운 年代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2次 大戰後 世界를 지배해 왔던 冷戰의 時代가 지나가고 脫이데올로기 時代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世界는 어느 民族을 막론하고 教條的인 이데올로기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기 民族의 生存權을 되찾고 自由와 人權과 幸福을 追求하는 人間本연의 權利를 回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南과 北이 民族의 自主力量을 발휘하여 지난 半世紀 동안의 反目과 對決을 청산하고 和解와 協力の 새 時代를 열어 나가는 것이며 平和와 統一의 길을 닦아 나가는 일인 것입니다.

北側 代表여러분!

우리는 南北關係를 改善하고 화해와 協力を 促進하려는 共通의 目的을 갖고 작년 2月以來 약 1年동안 南北高位級會談을 마련하기 위한 豫備會談을 가져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다섯차례에 걸친 豫備會談을 하여 서로 솔직한 意見들을 개진하면서 수많은 討論을 가졌으며, 그 結果 많은 부분에서

意見一致를 볼 수 있었습니다.

南北間에는 당초 本會談의 名稱과 議題 및 代表團構成 問題 등에서 현저한 見解差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相互 진지한 討論을 통하여 異見들을 좁히고 共通點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雙方은 本會談의 名稱을 「南北高位級會談」으로, 議題는 「多角的인 交流·協力問題와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解消問題를 並行討論한다」는데 意見一致를 보았습니다.

本會談의 時期와 場所는 豫備會談 終了後 1個月 以內에 開催하되, 서울과 平壤에서 번갈아 開催하며, 第1次 本會談은 서울에서, 第2次 本會談은 平壤에서 開催하기로 合意하였습니다.

代表團 構成은 雙方 각기 總理를 首席代表로 하여 7名으로 하되 代表는 長·次官級으로 構成하며 이 중 軍代表는 參謀總長級 1名을 包含하여 2名 範圍內에서 각기 편리한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隨行員과 記者數는 각각 33名과 50名으로 하기로 合意했습니다.

그 밖에 會談形式, 合意書 採擇, 記錄, 報道, 身邊安全保障등 進行節次 問題에서는 雙方間에 별다른 異見이 없었으며 종래의 會談慣例들을 準用하기로 意見一致를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豫備會談이 좋은 成果를 거두게 된 것은 서로 理解하고 양보하는 자세로 會談을 運營해 온 結果라고 생각합니다.

北側 代表여러분!

우리는 지난 1年동안 進行되어 온 豫備會談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짓고 雙方 總理를 首席代表로 하는 南北高位級會談을 實現시키는 막바지 段階에 들

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豫備會談에서 討議해야 할 남은 問題는 ① 本會談 議題로 설정된 南北間의 多角的인 交流·協力과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解消問題를 어떻게 表記할 것인가 하는 것과 ② 合意書의 全體 文案을 어떻게 整理할 것인가 하는 두가지 問題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상 두가지 問題에 대해서 우리側 立場을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本會談 議題의 表記問題에 대하여 나는 이미 작년 12월에 있었던 第5次 豫備會談에서 『內容上 意見差異가 없다면 서로 便利한대로 表記하자』고 提議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貴側이 多角的인 交流·協力問題와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解消問題를 한데 묶어 포괄적 議題로 設定하자는 우리側 提議에 同意했으며 또한 議題表記 順序가 討議의 順序를 意味하는 것이 아니란데 雙方이 의견을 같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南北間의 合意文書들에는 내용상의 見解差異가 없을 경우, 서로 편리하게 表記해 온 사실이 여러차례 있었음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다만 이번 本會談 議題의 表記에 있어 우리側은 交流·協力問題를, 貴側은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解消問題를 각기 앞세우고 있는 형편을 考慮할 때 이를 妥結짓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立場을 尊重하는 뜻에서라도 便宜主義에 따라 表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내용상 차이가 없는 한 서로 便利한대로 表記하자는 우리側 主張에 貴側이 同意할 것을 期待하는 바입니다.

둘째, 合意書 文案의 整理問題입니다.

나는 지난번 豫備會談에서 내놓은 貴側의 合意書 文案을 자세히 檢討하

여 보았습니다.

나는 앞서 말한대로, 本會談 議題의 表記問題만 解決된다면 合意書 文案을 整理하는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며 다만 ①合意書의 前文을 어떻게 할 것인가 ②合意書의 字句들은 어떻게 調整할 것인가 ③發效日과 合意書의 署名 形態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등의 實務的인 問題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나는 貴側 合意書案을 受容하여 作成한 우리側의 合意書案을 다음과 같이 提示하고자 합니다.

「남북고위급회담」개최에 관한 합의서(안)

대한민국 정부당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당국은 쌍방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하기 위하여 1989년 2월 8일 제 1차 예비회담을 가진 이래 ()차례의 예비회담과 ()차례의 실무대표 접촉을 가졌다.

쌍방은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

1. 회담명칭

회담명칭은 「남북고위급회담」(이하 「회담」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2. 회담일시

제 1차 회담은 예비회담이 종료된 후 1개월 안에 개최하되 제 1차 회담 날짜를 정할 때 제 2차 회담 날짜도 함께 정하고 그 다음 회담부터는 매차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3. 회담장소

회담은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가면서 하되 제 1차 회담은 서울에서, 제 2차 회담은 평양에서 한다.

4. 회담의제

회담의제는 「남북간의 다각적인 교류·협력과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문제」로 한다.

5. 회담대표단 구성

회담대표단은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7명으로 하되 대표는 장·차관급으로 구성한다.

회담대표단의 군 대표는 참모총장급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내로 하며 그 수는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6. 수행원 및 기자

회담수행원은 33명으로 하며 기자는 50명으로 한다.

7. 회담형식

회담은 쌍방 회담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본회담 테두리안에서 총리단 독회담과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다.

회담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한다.

8. 합의서 채택

합의내용은 각기 2통씩 문서로 작성하여 대표단 수석대표가 서명한 다음 1통씩 교환한다.

9. 회담기록

회담기록은 속기·녹음·녹화 등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10. 회담보도

회담보도는 각기 편리한대로 하며 쌍방 합의에 따라 합의내용을 공동

으로 작성하여 발표할 수 있다.

11. 회담장 표지 및 시설

- ① 회담장에는 어떠한 표지도 하지 않는다.
- ② 초청측은 회담장에서 상대측 대표단과 기자단이 자기측에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한다.

12. 신변안전보장

- ① 쌍방은 회담을 위하여 상대측을 왕래하는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총리명의로 된 각서를 회담 7일전에 판문점에서 교환한다.
- ② 초청측은 상대측 인원들의 문서, 통신, 사무용기재, 사진필름, 녹음 및 녹화테이프, 취재수첩, 보도자료 및 기타 회담에 필요한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13. 대표단 표지 및 증명서

- ① 쌍방 대표단은 자기측 총리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한다.
- ② 기자는 기자완장을 착용한다.

14. 판문점 통과절차

- ① 쌍방은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는 인원들의 명단을 회담 3일전에 넘겨준다.
- ② 명단에는 성명, 성별, 대표단 직위를 밝히며 사진을 첨부한다.
- ③ 명단을 넘겨준 후 변동사항은 직통전화로 통지하고 판문점을 통하여 이를 문서로 전달한다.
- ④ 대표단과 기자단의 판문점 통과지점은 군사분계선상에 있는 건물로 한다.
- ⑤ 초청측은 상대측으로부터 넘겨받은 명단에 따라 신분을 대조확인하고 상대측 인원들을 접수하며 돌아갈 때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한다.

15. 기자의 취재활동

쌍방은 체류기간중 상대측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보장하며 남북간의 신뢰와 이해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노력한다.

16. 체류일정

상대측 지역에 체류하는 일정은 3박 4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초청측은 체류일정을 회담 7일전에 상대측에 통지한다.

17. 편의제공

- ① 초청측은 체류기간 상대측 인원들의 숙식, 교통, 통신, 의료, 보도 및 기타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 ② 쌍방은 상대측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초청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 ③ 초청측은 상대측 대표단의 자기측 지역 체류기간 중 1일 2회 행낭운반을 보장한다.

18. 의 전

체류기간 의전문제는 쌍방 실무자들 사이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19. 직통전화

쌍방은 이미 가설된 서울과 평양사이의 직통전화선을 이용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증설할 수 있다.

20. 합의서 발효

합의서는 교환된 때로부터 유효하다.

1990 년 월 일

대 한 민 국
국무총리의 위임에 의하여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대표단
수석대표 송 한 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의 위임에 의하여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대표단
단 장 백 남 준

以上 우리側の 合意書案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이 合意書案은 貴側の 主張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만큼 貴側이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貴側이 이와 같은 우리側の 合意書案을 檢討함에 있어 다소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考慮하여 合意書 文案整理를 위한 實務代表接觸을 별도로 가질 것을 提議하는 바입니다.

實務代表接觸에서 合意書 文案整理를 끝낸 후 雙方은 第7次 豫備會談을 갖고 서울과 平壤에서 開催할 第1, 2次 本會談 日字를 정하는 한편 合意書에 署名하여 이를 交換하는 節次를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北側 代表여러분!

나는 1990 年代의 첫해를 맞이하여 南北 雙方의 高位當局者들이 서로 자리를 같이 하여 相互 關係改善 등 懸案問題들을 깊이있게 討議하고 協議·解決해 나간다면 이는 分斷 歷史를 清算하고 統一로 나아가는데 있어 劃期的 局面을 열어놓게 되리라고 確信합니다.

이것은 곧 現實認定の 바탕위에서 南北關係를 改善하고 平和를 定着시키며 民族共同의 繁榮으로 나가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는 和解와 協力の 길로 나아가고 있는 世界史的 潮流에 우리 民族이 能動的으로 參與하고 있는 모습을 온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民族의 밝은 未來를 내다보면서 오늘 이 豫備會談이 원만하게 妥結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으며 貴側의 성의있는 呼應이 있기를 期待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北(백남준) : 수고하셨습니다.

南(宋漢虎) : 그저 이제 뭐 우리 오늘 合意書 文案을 提示를 했는데 議題表記順序만을 除外하고는 貴側의 合意書 文案하고 뭐 거의 같다. 사실상 우리 合意書 文案을 作成을 할 때 貴側이 지난 5次 會談에서 提示했던 그 合意書 文案을 최대한 尊重하고 受容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 별 差異가 없습니다. 字句도 대체적으로 다 맞고 그래서 아마 오늘 節次問題는 議題問題 表記順序만 妥結되며는 모든 問題가 다 매듭을 짓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北(백남준) : 그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南(宋漢虎) : 예.

北(백남준) :

〈北側 基本發言〉

남측대표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해에 들어와 처음으로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와의 회담을 위하여 「통일각」에 온 남측대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온 겨레는 올해에 대화가 적극 추진되어 북과 남 사이의 격폐 상태를 풀고 자주적평화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1940 년대에 시작된 민족분렬이 90 년대에 들어선 오늘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는것은 민족자주성의 견지에서 보나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보나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의 피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이 반세기 가까운 오랜기간 갈라져 살아온것만 해도 통탄할 일인데 민족분렬을 90 년대에도 끝장내지 못하고 다음 세기까지 연장시킨다면 그보다 더 큰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더이상 갈라져 살 수 없고 또 분렬된 조국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서는 안된다는 민족적 사명감으로 하여 북과 남, 해외의 량심있는 동포들은 서로 앞을 다투며 통일의 문을 힘있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의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북과 남사이의 분렬의 장벽을 마르고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북과 남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새로운 평화통일방안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우리의 이 새 제안은 통일도상에 가로놓인 실제적인 장애를 제거하고 자주적평화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어나갈 수 있는 길을 명시한 참으로 중대한 방안입니다.

우리는 이 획기적인 방안을 실현하는데 분렬로 인한 겨레의 고통을 가시고 온 민족의 힘을 합쳐 통일의 돌파구를 여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결과 반목속에서 수십년을 살아온 북과 남이 최단기간내에 통일의 길로 나가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을 격폐시키고 차단하는 장벽부터 허물어야 합니다.

나라의 한복판을 가로지른 콘크리트장벽은 민족분렬과 북남대결의 상징이며 세계 어느 나라 국경에서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인공적인 차단물입니다.

나라안에 군사분계선이 있는것만 해도 가슴아픈 일인데 인공적으로 쌓아놓은 장벽까지 있는것은 민족의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분계선 남측지역에 있는 콘크리트장벽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엄연히 실재하는 콘크리트장벽이 없다고 하는것은 언제까지나 북과 남의 장벽을 쌓아놓고 있겠다는것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측의 콘크리트장벽을 허문다면 우리측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철조망을 제거하는 것은 간단히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콘크리트장벽을 제거하고 북과 남은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자유래왕은 말그대로 누구에게나 차별없고 제한없는 것으로 되어야 하며 북과 남의 개방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치는 전면적인 개방으로 되어야 합니다.

북과 남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고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이 실현되면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를 모으고 힘을 합쳐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북남당국이 행정적처리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문

제가 아니며 북과 남의 당국과 정계를 대표하는 각 정당 수뇌들의 진지한 협의와 결단에 의해서만 그 실현이 가능한 정치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북과 남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를 제의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내외인민들은 조선의 정치인들의 일거일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획기적인 새로운 제안에 대한 귀측 당국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귀측의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우리와 함께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와의 정치협상에 나설 용단을 내려야 할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측에서 다른 나라에서 분렬의 장벽을 허문데 대해 말하여 왔고 또 우리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 제의에 「환영」을 표시한것 만큼 이 협상회의마당에 나오는데 문제로 될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협상회의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을 표시하면서 협상회의소집을 위한 예비접촉을 판문점에서 가질것을 제의하는 공화국 정부, 정당 대표들의 련석회의에서 채택된 편지를 이미 귀측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나는 귀측이 이 회담을 통하여 북과 남사이의 장벽을 마스고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며 이를 위한 북과 남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가 빠른 시일안에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남측대표여러분!

우리는 올해에 어떻게 하나 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열어 나가려는 드

탐없는 의지로부터 북과 남사이에 새로운 협상회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예비회담을 하루빨리 결속하고 본회담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비회담을 결속하고 하루빨리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개최하게 된다면 그것은 올해에 통일의 전환적인 국면을 열어 나가는데서 의심할 바 없이 중대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예비회담은 오늘 거의 마지막 고비에 이르고 있으며 내외인민들은 본회담이 조속히 열려 대결과 격폐 상태에 있던 북남관계를 새로운 궤도우에 올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 중대한 시점에 이르러 귀측은 또 다시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온 겨레에게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해에도 명백히 밝힌바와 같이 「팀스피리트 90」합동군사연습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대화상대방인 우리를 가상적인 적으로 하여 지상과 해상, 공중으로부터 일거에 전면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예비전쟁이며 전연과 후방에서 불의에 핵타격을 가하여 우리 민족을 살륙하고 조국강토를 폐허로 만들기 위한 핵시험전쟁입니다.

방대한 미군무력과 핵무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전쟁장비들이 대량적으로 동원되어 2월부터 4월까지 벌리는 상륙작전, 육전대투하작전, 도하작전, 기습공격작전, 핵공격작전, 특수작전 등 작전, 각종전투 행동이 언제 어느 때 공화국북반부를 공격하는 실전으로 넘어가겠는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쉽사리 세계적인 핵전쟁으로 번져지게 될 것입니다.

은 거래의 통일열의가 비등되고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때에 특히 당국사이의 예비회담이 최종단계에 이르고 있는 이때에 귀측이 대화와 통일에 역행하여 도발적인 「팀스피리트 90」 합동군사연습계획을 발표한 귀측 당국의 태도를 놓고 우리는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측이 「팀스피리트 90」 합동군사연습계획을 서둘러 발표하고 남조선판도를 우리를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장으로 만들려고 하는것은 대화와 완화, 평화와 통일이 아니라 구태의연하게 대결과 전쟁, 분렬과 외세 의존 정책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명백히 말하지만 「팀스피리트 90」 합동군사연습은 북남대화의 분위기를 파괴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고있는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의 개최를 위태롭게 하는 엄중한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과 같은 대규모 전쟁연습이 대화와 랑립될 수 없다는데 대하여 한두번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는 이와 같은 전쟁연습은 평화의 길을 탐구하려는 우리 대화의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며 이처럼 위험한 정세하에서는 우리의 대화의 전도가 결코 담보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일면 대화를 하면서 일면 전쟁연습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귀측의 2중적인 대화자세입니다.

대화에 나와서는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자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대

규모적인 「팀스피리트 90」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여 대결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침예한 전쟁분위기를 조성해 나서는 것은 누가 보아도 언행의 불일치이며 대화상대방에 대한 신의없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형편에서는 도저히 귀측이 대화마당에 나와서 하는 언약을 믿을 수 없고 귀측과 신의있는 대화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귀측이 늘 말하는 「남침위협」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전쟁연습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그것을 곧이들을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는 벌써 오래전에 「남침」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했고 그것을 실천으로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1986년 가을에 인민군병력 15만명을 현역에서 떼내어 평화적인 사회주의건설에 돌렸고 1987년에는 인민군병력 10만명을 일방적으로 축감하여 제대시킨데 대해서는 귀측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 사회주의나라들에서도 병력을 대대적으로 축감하고 아세아 지역에 배치했던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 핵미사일을 폐기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귀측이 「남침」에 대하여 우려할 근거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우리가 무모한 핵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는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말보다 실천을 중시합니다. 실천으로 안받침되지 않는 말이란 한갓 공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하는데서 귀측이 아직도 문제를 대화가 아니라 대결과 전쟁의 방법으로 해결할 생각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력력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외정세는 크게 변하였으며 오늘은 「팀스피리트」합동 군사연습을 시작하던 1970년대도 아닙니다.

지금 북과 남에서는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의 문을 열라는 목소리가 날로 더욱 높아가고 있으며 온 민족의 통일념원은 새로운 90년대를 맞이하여 더욱 간절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무엇때문에 우리 민족이 구태의연하게 대결관념에 사로잡혀 계속 반목질시하고 힘의 우열을 겨루어야 하며 무엇때문에 외세와 함께 민족의 자멸을 초래하는 위험한 전쟁연습까지 벌여놓아야 하겠습니까.

대결과 전쟁의 방법으로,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던 시대는 이미 과거로 되었으며 힘에 의거하여서는 우리 민족내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귀족이 낡은 대결관념으로부터 출발하여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대규모적으로 벌리면서 「힘의 립장」에서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대화자체를 그르치게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이 민족적 존엄과 자주성의 견지에서 도 도저히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족내부문제에 외세를 끌어들이고 외세와 합세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벌린다는 것은 민족의 수치입니다.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남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주적으로 살 것을 바라고 있으며 모든 민족들이 외세의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거창한 력사의 흐름속에서 수많은 나라 인민들이 자주독립을 쟁취

하였으며 사실상 오늘날에 와서는 의세에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지노예로 사는 인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무엇때문에 남조선만이 아직도 의세의 보호를 요구하면서 외국군대와 핵무기까지 끌어들이 민족을 핵전쟁의 참화속에 밀어넣고 신성한 조국강토를 핵폐허로 만드는 것과 같은 무모한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동족은 어디까지나 동족이며 의세는 어디까지나 의세입니다.

진실로 민족의 녀을 가진 사람이라면 동족과 손을 잡고 의세의 침략을 물리쳐야 하며 의세의 우롱에 통락되어 민족적리익을 해칠것이 아니라 민족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먼저 민족의 존엄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예비회담을 시급히 결속하고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개최하며 대화의 국면을 유리하게 조성해 나가는 것은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립장으로부터 예비회담의 걸림돌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실무절차문제토의에 앞서서 「팀스피리트 90」합동군사연습중지문제를 먼저 토의해결하자는 것을 제기합니다.

아울러 나는 「팀스피리트 90」합동군사연습의 중지문제에 대한 토의를 위하여 이 예비회담에서 귀측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것을 제기합니다.

- ① 미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팀스피리트 90」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며
- ② 「팀스피리트 90」합동군사연습을 위해 조선반도경내에 들어온 미국군대와 군사작전장비들을 무조건 즉시 철수시키는 조치를 취하며
- ③ 최소한 군사훈련을 하는 경우 일체 외국군대를 참가시키지 말고 남

조선군대만 가지고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우리의 이 3개항목의 제안은 민족의 머리위에 무겁게 드리운 핵전쟁 위협을 가시고 북남대화의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긴급대책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북남대화, 구체적으로로는 우리 예비회담의 진전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 완화를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 하는것을 가르는 척도로 될 것입니다.

나는 귀측이 우리의 이 제안을 신중히 대하고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리라고 기대합니다.

아울러 나는 우리가 올해 북과 남사이에서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북과 남의 자유래왕과 전면적인 개방을 실현하며 그를 위해서 북과 남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제안을 귀측에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한두가지 더 부언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제안이 나간 다음에 들려오는데 의하면 귀측 당국에서 상서롭지 못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송선생의 발언을 듣고 저는 그에 대한 귀측의 입장을 들을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귀측에서는 엄연히 존재하는 콘크리트 장벽은 없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들려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우리가 알건데는 높이만해도 대형 수력발전소의 댐과 같은 그런 높이에 맞먹는 엄연한 콘크리트장벽을 쌓아놓고 장벽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끝이 들겠습니까. 엄연히 있는 것이야 있다고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신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콘크리트장벽은 민족분열의 상징입니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장벽을 그대로 두고 있는것은 민족의 수치입니다. 세상에 장벽이라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성산성, 태백산성 등 이런 성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들은 다 외세를 물리치기 위해 쌓은 장벽들로서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국토를 동강내고 민족의 혈맥을 끊어 놓는 그런 장벽을 쌓은 예가 없습니다.

자유래왕, 전면개방을 실현하려고 하면 콘크리트장벽을 허물어 버려야 합니다. 귀족에서 올해 연두기자회견에서 북과 남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환영한다고 한 것 만큼 콘크리트장벽을 허무는데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문을 활짝 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 통일된 후대에 그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운 유물을 그대로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콘크리트장벽을 허무는데 귀족이 더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협상형식문제에 대해서 말한다면 본단의 장벽을 허물고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는 문제는 민족사적 개혁으로써 행정상의 문제이기 전에 북과 남의 각계각층의 의사를 집대성할 수 있는 책임있는 당국자들과 각 정당 수뇌들이 참가해서 협의·해결해야할 정치적 문제이며 민족의 중대사입니다.

그런데 귀족은 우리가 제기한 북과 남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를 묵살하고 그 대신에 정사회담에서 토의하자고 본질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협상형식의 기본은 해결해야 할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규정되는 것입니다. 귀측에서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제의한 이 협상회의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귀측은 또 그 무슨 이산가족문제니, 그 무슨 개방이니 교역이니 하는 문제들을 이야기하였는데 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이 실현되면 다 저절로 풀리는 문제라고 인정합니다.

무엇때문에 선후차를 가리고 제한을 가하고 조물쭏하게 하겠습니까? 그런 낡은 방식은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분리시켜 생각하지 말고, 차별을 두지 말고 제한없이 대범하게 활짝 문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귀측에서 우리가 보낸 편지를 받고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내일 그것을 넘겨준다고 하니 어떻게 그 회답을 보내올 것인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우리가 내놓은 새로운 평화통일방안은 민족의 통일열망과 요구를 반영해서 제기한 것이고 또 온 민족이 그것을熱烈히 환영하고 세계가 적극 지지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당한 방안인 것 만큼, 귀측이 엄연히 존재하는 콩크리트장벽을 없다고 회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담하게 허물고 북과 남이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는데 적극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南(宋漢虎) : 節次問題 討議 안하자는 겁니까?

北(백남준) : 討議를 합시다.

南(宋漢虎) : 오늘 節次問題에 대한 이야기는 일언반구도 없이 무슨 會談과 전혀 關聯없는 팀스피리트 訓練이다 무슨 콩크리트障壁이다, 뭐 協商

會議다 그런 것만 왜 이야기를 합니까? 節次問題 이야기를 하죠.

北(백남준) : 작년에 宋先生 하시던 것처럼 會談과 關聯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會談하고 직결돼서 이 會談의 運命이 말하자면 우리가 회담 자체란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協商의 方法으로 제기된 問題를 풀어나가자는 것이 會談인데 이 會談을 한쪽으로 하면서 말하자면 會談 相對方을 공격하는 이런 팀스피리트合同軍事演習과 같은 이런 戰爭演習을 벌여놓는 것은 이것은 우선 예의 문제이기 전에 아주 온당치 못한 그런 처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實務節次問題를 貴側이 討議하자고 그랬고 우리도 討議하자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基本發言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제기한 문제를 먼저 協議하고 그리고 實務節次問題討議에 들어갑시다. 우선 그쪽에서.

南(宋漢虎) : 그거 協議안하면 節次問題討議 안하겠다는 거요?

北(백남준) : 말씀 다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貴側에서 지금 콘크리트 障壁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貴側에서 콘크리트 障壁이 없다. 그런데 실제 그것이 없는가?

이 엄연히 있는걸 허몰어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問題에 대해서 우선 宋先生의 對答을 듣고 싶습니다.

南(宋漢虎) : 나는 오늘 백선생이 會談과는 전혀 關係가 없는, 節次問題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무슨 팀스피리트 訓練이다, 또 콘크리트 障壁이다, 協商會議다 이런 問題를 들고 나와서 節次問題 討議를 회피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5次 會談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本會談의 名稱, 代表 團構成, 本會談의 開催時期와 場所, 議題등 다 合意를 했습니다.

다만 아까도 내가 歡談時間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議題表記順序 하나만 合意를 못보고서 지금 最終合意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狀況입니다.

요거 하나만 우리가 妥結하면 節次問題가 모두가 매듭이 지어지는 이런 狀況에서 貴側이 會談과 관련이 없는 問題를 또다시 들고 나와서 이 會談의 進行을 방해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다된 밥에 재를 뿌리는 行爲다. 나는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것은 우리 總理들의 高位級會談이 빨리 성사되기를 바라는 우리 겨레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貴側은 오늘 무슨 콩크리트 障壁이다, 혹은 協商會議다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해드릴게요.

貴側은 마치 우리側이 自由往來라든가 혹은 社會開放을 막기 위해서 베를린障壁과 같은 그런 障壁을 우리側에 構築해 놓은 것같은 이야기를 하고 또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같은 행동이야 말로 마치 南北間에 自由往來가 안되는 原因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그 責任을 우리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狡猾한 伎倆이라고 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側에는 貴側이 主張한 것과 같은 무슨 南北住民들의 自由往來를 막기 위해서 構築해 놓은 그런 障壁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할게요.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貴側의 무슨 탱크라든가 기계 화부대들이 침투하고 공격할 것에 대비를 해서 軍事的 目的으로 貴側탱크가 침투하기

용이한 接近路 부분에다가 군데 군데, 군데 군데 대전차 방어용 장애물을 設置한 것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貴側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사람들의, 住民들의 自由往來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貴側 탱크의 自由往來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施設物입니다.

貴側의 탱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3,500 여대, 장갑차만 해도 2,000 여대 이렇게 막대하게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와같은 군사용 시설물을 갖게 된 것은 6.25 때 貴側이 수백대의 戰車를 앞세우고서 기습남침을 함으로써 우리軍이 부득이 後退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러한 教訓을 다 經驗 삼아서 그러한 悲劇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고 우리의 安保를 보다 공고히 確保하려는데서 이와같은 시설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軍事的目的으로 만들은 거예요.

이렇게 軍事적인 目的으로 만든 시설물을 제거하라 하는 것은 貴側의 군사적인 위협이라든가 혹은 공격앞에 무장해제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있으라 하는 그것과 같은 강탈적인 要求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거고 그러한 主張의 뒤에 숨은 意圖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때문에 그같은 主張을 하느냐, 또다시 6.25 때와 같은 行動을 되풀이 하고 싶어서 그러는가 하는 의심을 우리가 떨쳐 버릴 수 없다. 이 거예요.

그러한 施設物을 말한다 하게 되면 貴側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貴

側이 전 전선에 걸쳐서 1 km~4 km길이로 이러한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또 철조망의 경우만 하더라도 貴側이야 말로…….

우리는 남방한계선에 1~2겹의 철조망밖에 가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貴側은 3중, 5중으로 하고 있고 심지어는 高壓電流가 흐르는 철조망까지 다 가설하고 있는 것이 現實입니다.

그러한 狀況下에서 남의 군사적 目的으로 設置되어 있는 障礙物을 가지고 어찌고 저찌고 없애라 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내가 다시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貴側이 協商會議 운운하는데 그러한 것이야 솔직이 말해서 백선생이나 나나 다 南北對話에 그동안 오랫동안 종사해서 다 알지만 貴側이 40여년동안 줄곧 외워오던 이른바 南北政治協商會議나 무슨 連席會議의 再版이 아닙니까? 再版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새로운 內容이 없어요.

옛날 케이크에 마치 새로운 리본만 하나바뀌 달아 가지고 새로운 케이크처럼 꾸며서 내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南北間에 주요한 현안문제, 統一問題를 비롯한 여러가지 주요문제 같은 것은 權限과 責任이 있는 政府 當局間에 對話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政黨代表가 나서 가지고 한다 이거 오히려 問題를 더 複雜하게 만든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盧泰愚大統領께서 지난 1月 10日에 年頭 記者會見을 통해서 當局間에 對話를 하자, 특히 最高 責任者 會談을 통해서 貴側이 이야기하는 그런 自由往來, 社會開放問題 論議하자 이랬습니다.

貴側이 진정으로 自由往來 그리고 社會開放問題에 관심이 있다면은 이 會談에 호응해 나오세요. 왜 會談에 호응해 나오지 않으면서 무슨 協商會議다, 우리가 거부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結果적으로 貴側이 自由往來에 대한, 사회개방에 대한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北(최성익) : 宋先生, 누가 할 이야기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南(宋漢虎) : 지금 알다시피 南北間에 國會會談을 위한 準備接觸이 진행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다 타결되어 가지고 國會會談이 성사되고 하면 南北의 정당대표라든가, 혹은 國會議員, 政治人들이 자유스럽게 交流하고 接觸할 수 있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만나게 되면 議題와 관련해 가지고 서로 問題를 協議하고 討議할 수 있습니다. 그런 國會會談을 성사하는데는 성의를 안보이고 무슨 協商會議다 이런걸 보며는 貴側이 어떤 정상적인 對話를 회피를 하고 어떤 다른 政治的인 의도를 가지고서 이와같은 問題를 들고 나온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금 내가 강조하지만 그런 會談과 관련이 없는 問題들은 이제 더이상 거론하지 말고 우리 節次問題 討議합시다. 단 한가지 남았어요. 그거만 解決하며는 다 이제 總理들간에 高位級會談이 成事되는 겁니다.

왜 지금 와 가지고서, 그런 막바지 단계에 와가지고 貴側은 왜 節次問題 討議를 회피합니까?

北(김영철) : 내 좀 말하겠습니다.

南(宋漢虎) : 하세요.

北(김영철) : 實務節次問題를 討議하자는 宋首席代表의 意見에는 다른 異意가 없습니다.

南(宋漢虎) : 없지요? 없으면 論議를 하세요.

北(김영철) : 宋先生, 내 말을 다 듣고 이야기 해야지 首席代表先生은 언제나 말꼬리 끝이 아닌데 그렇단 말입니다.

다른 것이 없는데 그런데 오늘 왜 우리가 이런 問題를 제기하는가 하는 취지에 관해서 몇가지 좀더 添加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發言에 앞서서 내 한가지 좀 愉快하지 못하게 있습니다.

6.25가 무슨 北의 탱크의 기습남침이요, 또 構築한 障壁이 北의 탱크때문이요 하는데 이 發言에 대해서 責任을 져야 돼요.

南(宋漢虎) : 무슨 責任을 져요? 무슨 責任을!

北(김영철) : 내 말씀을 좀 듣고 해요.

南(宋漢虎) : 무슨 責任을 져?

北(김영철) : 이 말씀에 대해서는…….

北(백남준) : 맥아더에게 물어 보시요, 맥아더한테 물어 보라요.

南(宋漢虎) : 내가 다 얘기 해줄께.

北(백남준) : 이야기는 남이 하는데 왜 짐잡지 못하게 그렇게 해요.

南(宋漢虎) : 무슨 責任을 져! 무슨 責任을 지란 말이야!

北(백남준) : 宋先生 저번에도 한말인데 왜 相對側 首席代表한테 代表가 이야기하는데 무엇때문에 끼어 들어가서 왜 그래요?

南(宋漢虎) : 首席代表가 무슨 責任을 져요? 남의 發言에 대해서 무슨 責

任을 저!

北(백남준) : 6.25 남침기습을 맥아더한테 물어보라요, 李承晩한테 가서 물어보라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南(宋漢虎) :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하지.

北(백남준) : 애기들으시오. 애기를 듣고 해야지, 짐작게 해야지.

北(김영철) : 왜 이야기 하는가.

北(백남준) :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야지. 아니 이런 식으로 뭐인가 하면...

北(김영철) : 상당히 이상한데 가만히 있으쇼. 왜 그런가.

南(宋漢虎) : 責任을 지라니, 거기에 대해 答辯이라면 모르겠어, 왜 責任을 지라고 그래!

北(김영철) : 雙方을 尊重하는 의미에서 會談에서 이야기할 問題가 있다. 거론할 問題가 있다.

對話 雙方이 아납니까? 尊重하고 서로 信義가 있게 이야기가 오고 가야지, 마치도 構築한 障壁이 그 누구의 무슨 南侵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 있겠느냐, 사실상 發言을 撤回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동지가 이야기했지만 올해 統一의 대문을 열자는 온 民族의 절절한 목소리를 그대로 구현하셔서 또 분열로 인한 단절의 悲劇을 끝장내자는 단호한 결심에서 우리 人民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分斷의 障壁을 허물고 그리고 연이어 自由來往과 全面開放을 실현할데 대한 劃期的인 統一方案을 내놓았습니다.

이 方案이 나온 다음에 北南全體 人民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고 있

는데 유독 南側만은 오히려 오늘 이 會談 마당에서도 障壁이 없다느니, 또 얼마전에 國防部 代辯人은 그것이 반탱크 차단물이라느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응당한 方案에 대해 호응이 없었습니다.

오늘 방금 障壁問題를 왜 거론하셨는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자는 會談이 어떤 會談입니까? 北南사이에 가로놓인 政治的 대결상태라는 障壁物, 軍事的 대결상태라는 障壁物을 解消하자는 그런 會談입니다.

障壁은 政治 軍事的 대결상태의 산물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問題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會談에 관한 立場과 態度問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國土의 허리를 자르면서 障壁이 存在한다는 것은 嚴然한 現實입니다. 이걸 否認하지 못해요. 전선의 한 두곳도 아니고 250 km 전선에 걸쳐서 지물과 자연 障壁物과 配合해서 땅속이 아니라 땅위에 우뚝 솟은 障壁物을 없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어떤 배수가 높은 망원경이나 포대경을 가지지 않고도 육안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障壁을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民族을 속이고 세상사람들을 속이는 기만행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障壁이 있는 것은 嚴然한 現實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우리가 이 障壁을 허물라고 하느냐 하는 問題에 대한 理解를 내 좀 돕자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쪽에다 대고 障壁을 허물라는 것은 이 障壁이 반탱크 차단

물이라는 그런 구실 밑에 축성해 놓은 그대로 들래야 들 수 없는 分裂의 障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없애라는 겁니다.

戰爭마당에 아마 탱크가 출현한지 내생각에는 한 80年前, 1910 몇년경 같은데 그때로부터 한다하는 군사인들이 이 탱크를 막기 위한 반땅크 차단물, 반땅크 障物을 수태 만들었어요.

저 朴鍾權先生이 軍事 專門家니까 잘 알겁니다. 그렇지만 군사분계선 南側地域에 있는 障壁을 놓고 아마 軍事 專門家들에게 물어 보시요. 그게 반땅크 障物인가 하고 물으면, 「아니오」하고 누구든지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땅크, 장갑차의 發展趨勢를 놓고 봐도 現存하는 땅크, 장갑차를 놓고봐도 수직높이 5-8미터를 날아가는 땅크, 장갑차는 없을 겁니다. 비행땅크가 있는지, 비행장갑차가 있는지는 내 모르겠으되 그쪽에서 지금 美國사람들이 만든 반땅크 교범을 쓰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땅크 차단물을 어떻게 設備한다고 그랬습니까?

道路를 中心으로 해서 開豁地帶에 設備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땅크 차단물은 땅크의 높이를 계산해서 1.5-2미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한말이 거짓말인가 이제 한번 朴鍾權先生이 교범을 가서 보시요.

이 교범을 여기에 놓고 봐도 그러면 現實적으로 障壁이 그럼 좌우측 開豁地帶에만 있느냐 아니다, 산능선이 없는가 산골짜기에 있는가, 산봉우리를 건너갔다. 땅크 障物을 산봉우리에다 設置한다고 누구든지 말해보시요. 軍事家들이 웃습니다.

朝鮮인가, 아니면 우리 人民이, 우리 民族이 바라는대로 하나의 民族 하나의 朝鮮이라고 할 때에는 障壁을 마스는 問題가 하나의 統一問題를 推進시키는 시금석으로 된다. 우리는 그래서 허물자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 障壁을 허물자는 것은 이 障壁이 우리 民族 우리 人民의 수치가기 때문에 허물자는 겁니다. 우리 人民의 슬기로운 자랑찬 歷史에는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城壁을 쌓고 진지를 構築한 그런 前例는 많습니다. 그러나 제나라 제땅을 갈라놓기 위하여 城壁을 쌓은 적은 없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지금 항일의 불바다 피바다를 헤쳐오면서 祖國光復을 이룩한, 아까 宋首席代表 先生께서 基調發言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祖國光復을 이룩한 항일의 1세대들이 이 障壁을 보고 가슴을 쳐요 지금. 왜 그런지 압니까?

그네들이 日本놈들과 싸움할 적에 바란게 결코 분열된 祖國, 갈라진 民族이 아니었다. 統一된 祖國, 統一된 民族이었다. 그런데 또 障壁이 솟아났다 하니 가슴을 치지 않겠는가.

아마 모름지기 사람은 영원히 살아 있다는 미신적인 말이 맞다면 옛날에 外敵을 물리칠 적에 성을 쌓았던 강감찬장군이나 을지문덕장군이 땅밑에서 民族을 가르는 障壁이 솟아났다는 걸 알면 땅밑에서 칼을 쥐고 지금 부들부들 떨게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 허물자는 겁니다. 다른 理由가 없습니다.

그래서 障壁이 있는 障壁을 없다고 속일 것이 아니라 또 이게 반땅크 차단물이다, 또 누구의 南侵때문에 무슨 있는게다 하고 世上輿論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허무는게 좋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障壁을 허무는게 좋다고 이렇게 부러워 할 것이 아니라 허물어야 됩니다.

障壁을 허무는 여기에 自由로운 來往을 實現하는 길이 있고, 障壁을 허무는 여기에 全面的인 開放을 實現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가 이런 취지에서 障壁을 허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 障壁을 허물고 自由來往을 實施하고 全面開放을 實現할데 대한 우리의 要求에 應當한 호응이 있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다른 취지에서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南(金保鉉) : 내가 對答을 할게요. 貴側의 오늘 態度를 보고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고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節次問題를 작년 말에 全部 거의다 合意를 해놓고 本會談을 바로 合意文件을 交換할 이 단계에 와서 새롭게 없는 콩크리트 障壁問題를 들고 나와서 相對側에 이것을 철거하라느니 말라느니 하는 要求를 한데 대해서 참으로 遺憾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首席代表께서 말씀드렸지만 명백히 말하건대 우리는 콩크리트障壁, 다시 말해서 東西獨 分斷의 象徴과 같은 그러한 障壁은 없습니다.

왜 없는가, 이걸 간단합니다. 지상에 올라와 있는 커다란 障壁이 있느냐 없느냐를 確認하는 것은 눈으로 確認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確認하는 作業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貴側에서도 이루어졌고 우리側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 1月 19日날, 貴側이 하도 없는 障壁이 있다 있다 그래 가지고 우리 當局만이 아니라 當局의 주선에 의해서 우리쪽

에 있는 內信記者, 外信記者 全部 동원해서 이 休戰線을 왔습니다. 와서
눈으로 確認을 하도록 했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그러한 상징, 分斷을
상징하는 障壁은 없었습니다.

다만 있는 것이 뭐였느냐, 아까도 우리 首席代表께서 말씀을 했지만
貴側의 대전차 공격으로 부터 우리側을 방어하기 위한 대전차 障壁物
이것밖에 없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우리 記者들 말이지요, 그렇게 우리 當局이 뭐라고 그랬다 말하지 않
습니다. 저쪽에 記者들 많이 와 있습니다만 있는건 있다 그리고 없는건
없다 솔직이 쓰는 사람들이 우리 開放社會의, 民主社會의 自由로운 取材
活動인 것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아무리 살펴도 그러한 것이 없어서 그러한 障壁은 없
다 하는 것이 우리 新聞, 또 外國新聞에 전부 나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貴側에서도 確認作業을 했습니다. 지난 1月 13日
平和里에 內外信記者를 동원해서 와서 보였지 않습니까? 보였는데 그 確
認한 結果 어떤 論調들이 나오는가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1月 17日字 홍콩에 있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가 이렇게 썼습
니다. 「리처드 바이스」記者라는 사람이 기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직접 平和
里를 가서 현장 방벽이 있는 데를 가서 봤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北側이 콘크리트障壁을 허물어야 한다고 하는 主
張은 영국 스코틀랜드 「네스」호수에서 있지도 않은 괴물을 보았다 하는 격』
이라고 報道를 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分斷의 障壁이 아
니라 대전차 障壁物이 있을 뿐인데 이것을 分斷의 障壁이라고 우기는
것은 「네스」호수에서 있지도 않은 괴물을 보았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

해서 유령을 보았다는 겁니다, 유령.

그리고 또 한가지 遺憾스러운 것은 말이지요, 이렇게 있지도 않은 障壁을 가지고 있다 하고 우기면서 貴側 저「로동신문」제가 보고 있습니다. 1월초에 들어서면서 부터 계속 연일 그 대전차 구조물 하나를 놓고 요것을 分斷의 障壁이라고 하고 2천만 北韓住民을 향해서 연일 宣傳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側에 적대감을 갖게 만들고 對決意識을 고취시키고 허위의를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民族앞에서 과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없는 것을 있다고 할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中國 故事를 하나 引用하겠습니다. 중국 진나라시대에 조고라는 사람이 환관입니다. 은 조정과 백성을 기만하는 大欺瞞 術策으로서 말이지요 「指鹿爲馬」라는 말을 썼습니다. 가리킬 指字, 사슴 鹿字, 위할 爲字, 말 馬字,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 分斷歷史에서 말이지요, 南北關係를 이렇게 冷戰體制가 解消되고 풀어나가려는 이 시점에 도저히 우리로서는 理解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대전차 구조물 때문에 自由往來가 안되고 完全開放이 안되느냐, 이건 말이 成立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따져 봅시다. 79년에 생겼다는 소위 콘크리트 障壁이 왜 오늘날에 와서 提起됐는가, 이것도 問題려니와 그사이에 南北關係가 얼마나 많이 變했습니까? 84年 9月 貴側이 수재물자 보내 주어서 우리 고맙게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85年 9月 1次 故訪團事業 잘 進行되었습니다. 北(최성익) : 아니 金先生! 길이…….

南(金保鉉) : 가만 있어요.

南(金三勳) : 가만 있어요. 들어 봅시다.

南(金保鉉) : 대전차 장애물들, 아까 내가 指鹿爲馬라고 그정도로 했는데 또 그렇게 우기면서 말씀을 하시니.

다 잘 이루어져 왔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分斷의 障壁을 내세워서 自由往來가 안되고 開放이 안된다 이런 얘기를 끄집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自由往來問題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代表가 얘기할텐데 제가 끝으로 한마디 할게요.

11년전에 생긴 對戰車 構造物을 놓고 이것을 오늘날에 와서 分斷의 障壁이라고 하는 것을 우겨대는 貴側의 입장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 인용을 할게요. 東西獨의 그 베를린 障壁이 開放되던 작년 11月 9日 그로부터 나흘뒤에 貴側의 「노동신문」 社說을 發表했습니다.

『全黨, 全軍, 全民이 학습하자』 하는 題下로 말이지요. 앞으로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와도 이것을 이겨내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착잡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주체사상으로 이겨내자,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障壁 소리만 나오면 가슴이 떨리더라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障壁을 가지고 오늘날에 障壁을 만들어 가지고 北韓住民은 물론 온 세계를 기만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아까 金代表 얘기했지요? 뭐 1, 2메타 내지 2메타만 높이가 있으면 되는데 5메타, 7메타로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뭐 군사전에야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 돈 많습니다. 철벽같이 높이 쌓아서 전차가 영원히 못넘어오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貴側에 뭐 교량전차 이런거 있지요? 전차에다가 한 십여미터幅의 탑재기능을 하는 쇠붙이를 붙여 가지고 그걸 탁 걸쳐서 4메타고 이렇게 막 넘어 옵니다. 그거까지를 考慮해서 우리가 좀 높게 쌓았습니다. 戰車는 永遠히 넘어오지 못하도록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 分斷障壁 쌓았다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70年代初 南北對話가 막 시작될 무렵 貴側이 파 내려온 땅굴, 그 通路를 영원히 콘크리트 철벽으로 막아 버렸습니다. 不當한 武裝人員이나 工作員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또 對戰車障礙物 79년에 만들었습니다.

우리 立場은 명백합니다. 南北間에 自由往來를 해야된다, 相互開放을 해야 된다. 그러나 相對方 體制를 교란하거나 體制를 顛覆할 目的으로 부당한 自由往來를 한데 대해서는 우리 徹底히 막는다는 것이 우리 立場입니다.

다시 強調하지마는 우리側에 貴側이 말하는것 같은 分斷의 障壁은 없습니다.

南(宋漢虎): 백先生, 자 우리 節次問題 가지고 論議합시다.

北(백남준): 제가 좀 이야기 합시다.

南(宋漢虎): 백先生, 節次問題 論議 안해요?

北(백남준): 네, 節次問題 討論합시다.

南(宋漢虎) : 철차문제 論議해요. 뭐 會談과 關聯없는 문제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時間 浪費하고 進行을 방해하지 말고 철차문제 가지고 論議합시다.

北(백남준) : 내가 좀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貴側의 南側地域에 있는 콩크리트障壁을 허물고 自由來往과 全面開放을 할데 대한 우리의 새로운 劃期的인 平和統一方案에 肯定的인 호응을 보이리라는 그런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貴側은 콩크리트障壁이 없다, 없다면 우리가 멀리 않으니까 같이 가 봅시다. 진짜 없는가.

北(김영철) : 우리側 地域에서도 잘 보여요.

南(宋漢虎) : 그래 軍事代表團들 가서 한번 봐요. 그쪽에 가서.

北(김영철) : 그래 여기 寫眞…….

南(宋漢虎) : 지난번 17日에 軍停委 會議때 우리側에서 提議를 했는데 가서 確認하자고, 가서 해 봐요.

北(백남준) : 朴先生이…….

南(宋漢虎) : 軍事代表들 會談이 軍停委에서 있으니까 거기가서 하면 될거예요. 한번 해 봐요.

北(김영철) : 會談이 끝난 다음 같이 가 봅시다.

南(宋漢虎) : 가봐, 저쪽에 軍정위 代表들이.

北(백남준) : 會談이 끝나면 같이 가 봅시다. 없다면 가 봅시다. 그리고 저 朴先生 寫眞 보겠냐고 그랬는데 우리도 사진 보시겠다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南(宋漢虎) : 다 봤어요. 貴側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진 다 봤어요 어떡

한 것인가.

北(백남준) : 또 그 무슨 反땅크 遮斷物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問題를 回避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이제 여러가지로 救護物資랑 그때 가지고 나올때 그것 때문에 무슨 障礙가 되었는가.

그러면 우리가 反問하고 싶습니다. 그럼 장벽이 있다는 걸, 콘크리트 장벽이 있다는 걸, 分斷의 障壁이 있다는 걸 認定하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걸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金保鉉先生 말씀했는데 우리 分斷障壁 쌓은게 있다 肯定했습니다. 좌우간 東西를 가르는 몽땅 分斷의 障壁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뭐 工作員이랑 이렇게 남파할까봐서 그래서 쌓은 分斷의 障壁이 있다.

南(金保鉉) : 그건 땅굴을 이야기한 거예요. 땅굴 通路를 막았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相對便 얘기를 理解를 하셔야지. (웃음)

北(백남준) : 이렇게 現實的으로 存在하는 걸 없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눈감고 아웅하는 그런 식의 생억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歷史의 證明者들이 있습니다. 歷史의 證明者들. 그쪽에서 콘크리트 障壁을 構築할 때에 指揮한 사람들도 있을게고 國軍將兵들도 있을 것이고 그거 나와서 構築한 人民들도 있을 거이고.

南(宋漢虎) : 아니, 貴側 탱크의 自由往來를 막는 施設物이 있어요.

北(백남준) : 만약에 그쪽에서 이런 콘크리트障壁이 없다고 한다면.

南(宋漢虎) : 그건 내가 認定한다고, 탱크의 自由往來를 막는거.

北(백남준) : 내말좀 들으시요. 콘크리트 장벽이 없다고 하며는 그대에

거기에 歷史의 證明者들을 5천만 앞에 내놓고 한번 공청회를 대담하게 열어보시오. 뭐라고 하겠는가.

지척에 엄연히 콘크리트 장벽이 存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없다고 이렇게 생떼를 쓰는거는 귀측의 행동이 결국 分斷의 障壁을 허물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自由來往과 全面開放을 하지 않겠다는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事實은 貴側이 다른 나라에서 장벽을 개방한데 대해서는 환영한다 또 매우 부럽다. 그때 宋선생님도 그 몇차 會談이었는데, 그 동서독간에 장벽을 개방하는거 보니까 모두 도끼를 메고 나오고, 망치로 까고, 일싸안고, 춤추고, 노래부르고, 눈물흘리더라고 이렇게 대단히 부러워하셨는데, 조선반도에서 障壁을 허무는 것은 反對를 하고 폐쇄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과 같은 貴側의 폐쇄정책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콘크리트장벽을 허무는 것으로부터 그 폐쇄정책을 없앨데 대해서 표시해야 됩니다.

나는 貴側이 콘크리트障壁을 허물고 自由來往과 全面開放을 實現하며 그것을 위해서 北과 南의 最高位級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에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팀스피리트 90」合同演習을 中止할데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귀측에 要求를 했는데 이진 뭐 회담외적인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회피하고 또 貴側에선 뭐 아까 무슨 콘크리트 障壁을 허무는것과 關係해서 자유래왕, 전면개방 실현하는 문제와 關係해서 우리 협상회의 제안에 대해서 과거의 連席會議 再版이다 뭐 이렇게 하

는데, 그걸 길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데, 그쪽에서는 역시 당국이 對話 窓口一元化를 그냥 고집하는 입장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무슨 南侵奇襲이요, 무슨 뭐 6.25 南侵奇襲이요 하는데 그런 發言들은 하지 않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팀스피리트 90」을 中止하라고 하는 우리의 제안을 갖다가서 그 본질의 서투른 위장술로서 감싸고 그리고 그걸 回避하고 問題를 단테로 돌리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귀측에 왜 우리가 「팀스피리트 90」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問題를 제기하는가 하는 그 趣旨에 대해서 내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中止問題를 제기하는 취지는 첫째로 우리 豫備會談을 비롯해서 여러갈래의 北南對話들이 일시에 위기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쪽에서 아는 것처럼 올해는 우리가 이자도 이야기했던 北과 南이 이러한 分斷의 障壁을 마시고 自由來往과 全面開放을 實現하기 위한 이런 協商會議도 지금 豫見되고 있고, 그쪽에서 지금 便紙로 오늘 보내오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肯定的인 對答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다음에 또 우리는 民族共同의 統一方途를 모색하기 위해서 北과 南의 政黨·團體·當局이 參與하는 民族統一協商會議의 開催도 豫見되어 있습니다.

그런것만큼 北南對話에 대한 內外人民들의 관심이 크고, 또 온 겨레가 이 統一에 대한 希望으로 沸騰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希望과 期待는 「팀스피리트 90」合同軍事演習 計劃을 貴側에서 發表하면서 사실상 물거품이 되고 그리고 좋게 發展해서 結實

을 바라보게 되었던 北南對話앞에는 또다시 엄중한 難關이 造成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北南사이 對話를 中斷과 空轉이 없이 활발히 推進시켜서 結實을 맺도록함으로써 올해를 分裂의 障壁을 허물고 統一의 門을 열어나가는데서 歷史的인 轉換이 되는 해로 되게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데로부터 오늘 우리는 貴側에 「팀스피리트 90」 合同軍事演習中止問題를 緊急하게 提起한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팀스피리트 90」 中止問題를 提起한거는, 趣旨는 둘째로 팀스피리트合同軍事演習의 發表로서 당장 우리나라에 戰爭危險이 造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팀스피리트軍事演習은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새戰爭 특히는 核戰爭을 誘發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豫備戰爭이고 核試驗戰爭입니다.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政治·軍事的 對決狀態가 尖銳한 이런 조건에서 실지로 銃·砲彈을 쏘면서 進行하는 팀스피리트軍事演習은 어느때라도 實戰으로 변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最近 國際舞臺에서 벌어진 백주의 公公然한 이러한 侵略行爲들, 이런 行爲들은 팀스피리트合同軍事演習의 危險性을 더욱더 嚴重視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問題의 이런 嚴重성과 緊迫性, 그리고 맡겨진 우리 任務에 대한 이런 使命感과 責任感으로 부터 지난해 1, 2次 豫備會談에서 팀스피리트를 中止할데 대한 要求를 거듭 提起했고, 정 軍事訓練을 해야 할 事情이 있으며는 外國軍隊의 參加없이 그쪽 軍隊만 가지고 하고, 規模도 줄이고, 大幅 줄이고, 訓練名稱도 고쳐야 한다는 데서

알아들을 수 있으리만큼 充分히 說明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그러한 要求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實情에서 오늘 우리는 會談을 통해서 팀스피리트訓練 中止問題를 다시금 緊急 提議하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입니다.

그 趣旨는 세째로 팀스피리트訓練中止問題는 本會談의 運命과 直結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련하려고 하는 會談은 다름아닌 北과 南이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는 것을 자기의 基本使命으로 하고 있습니다.

雙方은 또한 北과 南사이의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할 問題를 本會談의 議程으로 한다는 것을 이미 合意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貴側은 最小限 팀스피리트合同軍事演習을 올해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서 자기의 誠意와 實踐意志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貴側은 돌아앉아서 이번에 미국과 함께 「팀스피리트 90」合同軍事演習을 褻忽한다는 것을 宣布했습니다.

이것은 對話相對方에 대한 挑戰이고 背信行爲입니다.

貴側과 같이 信義가 없는 相對를 어떻게 믿고 앞으로 北南사이에서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는 것과 같은 重大한 問題들을 協議·解決해나가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우리는 憂慮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豫備會談에서 팀스피리트合同軍事演習中止問題를 重要하게 提起한 것은 바로 이와같은 趣旨에서입니다.

貴側은 우리의 거듭되는 이런 勸告와 要求에 深思熟考해서 「팀스피리트 90」合同軍事演習을 당장 中止할데 대한 措置를 取해야 합니다.

우리가 要求한 3項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마는 「팀스피리트 90」合同

軍事演習을 中止하는 措置를 取하는 問題고, 이 訓練을 위해서 朝鮮半島에 投入된 美國軍隊와 軍事作戰裝備들을 撤去시키는, 撤收시키는 措置를 取하는 게고, 最小限 軍事訓練을 하는 경우에는 貴側 軍隊만 가지고 할 데 대한 措置를 取할데 대한 이 세개項의 요구입니다.

이걸 宋先生님 同意를 하십시오. 그러구서 우리 實務節次問題 討議에 들어갑시다.

南(宋漢虎): 貴側은 뭐 우리한테 있지도 않는 混凝土障壁을 있다, 그걸 또 제거하는 것을 前提條件으로 해서 自由往來를 한다하고 社會開放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마치 自由往來, 全面開放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진실성을 전혀 認定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나? 우리가 貴側에 오래전부터 南北間에 자유로운 인적왕래라든가 交流를 주장했고 社會開放을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貴側이 이거 다 拒否를 했어요. 거부를 하고 아까 뭐 우리보고 무슨 폐쇄정책을 철폐하라 하는데, 귀측이야말로 계속해서 이와같은 自由往來라든가 社會開放을 거부하면서 閉鎖政策으로 일관을 해 왔습니다.

자 내 한번 예를 들게요.

뭐 70年代것은 다 제쳐놓고 80年代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귀측에다가 제기를 했느냐?

우리 백선생 남북문제전문가니까 다 기억하실런지, 내 기억을 다시 상기시킬게요.

81년도 6월달에 우리가 「6.5」提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간에

완전한 사회개방을 위해서 우리 같이 노력하자』 그렇게 要求를 하면서 만일에 귀측이 北側에서 어떤 사정으로 인해 당장에 完全開放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經濟交流하고 文化交流하고 體育交流하고 다 우편교환도 해서 차차 완전한 개방으로 그 다음에 완전한 交流로 이렇게 접근시켜 나가자고 이렇게 提案을 했어요.

또 82年 1月달에 우리가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을 천명하면서 남북간에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하자고 提議를 하면서 이 자유왕래,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가지 교통·교역·우편·통신·체육·학술·교육·문화·보도·보건, 각 분야에 걸쳐가지고 이제 우리 협력을 함으로써 社會開放을 推進해 나가자 이렇게 提案을 했습니다.

또 82年 2月달에는 우리가 20個 示範事業을 提案했어요. 그래가지고 南北間에 관계개선을 하자. 그리고 신뢰구축을 위해서 우리 政治人들, 經濟人들, 文化·藝術人들, 體育人들, 各계각층인사들의 親善訪問을 실현하자 이렇게 提議를 했습니다.

또 再昨年 우리 7月에는 7·7宣言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귀측에 南北間에 정치인이라든가 경제인이라든가 언론인·종교인·학생·교수들간에 自由로운 交流를 실시하고 또 海外에 있는 동포들이 마음놓고 자유롭게 南北을 往來하도록 하자. 그리고 離散家族들이 소식을 서로 交換하도록 하고 또 서로 자기네들 헤어졌던 혈육과 가족, 친척들 다 만나도록 하자. 그리고 南北韓間에 경제적인 개방을, 교역을 완전히 개방을 하자. 이렇게 같이 제안을 했어요.

그러나 貴側은 이거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 拒否를 했어요.

그야말로 폐쇄정책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北(최성익) : 아니 우리가 73년도에 유명한 5대방침에서 다…….

南(宋漢虎) : 그래도 이런 것을 다 그렇게 拒否를 하던 귀측이 이제 와서 무슨 마치 自由往來라든가 혹은 社會開放에 대해서 관심이냐 지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다른 어떤 政治的인 目的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貴側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自由往來 이야기를 하면서 이른바 우리측에 있지도 않는 콘크리트 障壁이 있는 것처럼 宣傳을 하고 主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主張이야말로 귀측이 주장하는 自由往來가 얼마나 허구적인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측이 무슨 뭐 自由往來 이렇게 무슨 社會開放, 全面開放 이거 들고나온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들어와서 베르린障壁이 지금 무너지는 것을 비롯해서 동구라과의 社會主義國家들이 그야말로 一黨獨裁를 폐지하고 自由로운 選舉를 실시한다. 혹은 多黨制를 채택한다는등 그야말로 開放과 民主化措置를 취하는데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귀측도 무슨 開放과 自由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처럼 선전해서 귀측 주민을 뭔가 좀 무마해 불러는 이런 생각에서 나온게 아닌가하는 의심을 내가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측은 언필칭 自由往來이야기를 하고서 아까도 뭐 환담시간에도 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럼 왜 내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自由往來主張하면서 우리 赤十字會談을 할 때 離散家族 故鄉訪問團을 서로

交換하자고 ! 할때 ! 왜 귀족은 故郷까지 가는 것을 反對했느냐 이겁니다. 굳이 平壤하고 서울만 하라면서 그와는 안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거예요.

故郷이라는 것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입니다. 自由往來이야기를 하면서 왜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까지 못가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을 본다하게 되며는 귀족이 主張하는 자유왕래라는 것을, 그 진실성을 내가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認定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없는 콩크리트장벽의 除去를 前提로 해서 무슨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고려하지 말라. 그것을 누가 귀담아 들을 사람들 하나도 없다.

北(최우진) : 내 말좀 할까요? 계속 이야기를 합니까?

南(宋漢虎) : 예, 뭐 하세요.

北(최우진) : 예, 좀 이야기를 합시다.

이자 우선 이쪽에서 제기됐기 때문에 金保鉉先生 제기를 했는데, 왜 콩크리트장벽 問題를 지난 時期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들고 나왔는가?

그건 저 돌아가서 말입니다. 軍事停戰委員會會議錄 있지 않습니까?

1976年부터 1979年度까지 이거 우리가 콩크리트장벽 쌓는 문제에 대해서 이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엄정히 항의하고 당장 쌓아서는 안된다는것, 이미 쌓은거 다 허물어 버리라고 얼마나 항의했는가 하는거 보면 알아요.

南(金保鉉) : 그럼 그 通路로 항의를 하라구요. 우린 당국자아네요?

北(최우진) : 아, 아니 내 얘기를 들으라우요. 이제 뭐 처음 들고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지금 거론하시는데 이걸 사실은 맞지 않는다는거 이

건 明白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기를 獨逸에는 分斷의 障壁이 있지만 朝鮮半島에는 없다 그런데 사실은 獨逸에 있는 障壁은 있지 않습니까, 이 콘크리트 障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벽돌로 간단히 쌓아 놓은거요. 어떤데는 판자로 쌓아놓고. 여기에 있는 分斷의 障壁이라 하는거는 거기에 비하면 이거 뭐 억척같지요.

南(金保鉉) : 貴側…….

北(최우진) : 가만히 있으라고요. 내 다 이야기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北(최성익) : 얘기를 좀 들으시요.

北(최우진) : 그러기 때문에 東獨에는 分斷의 障壁이 있지만 朝鮮半島에는 없다? 있어도 아주 강철같이 이 철근, 강철을 이은 이와같은 장벽이라는거 요거, 요쭈 해답시다. 그건.

그 다음에 宋先生 미안하지만 이제 말씀한 것중에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이제 말씀하신데 대해.

이거 지금 마치 뭐 어느쪽이 閉鎖됐느냐 어찌냐, 또 우리가 무슨 自由來往하는거 이걸 지금 지나치게 反對하지 않았느냐, 뭐 여러가지 말씀하시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閉鎖, 開放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하면 우리 지난해, 먼 실례 들지말고 지난해 실례 드립니다. 우리 그 문규현 목사하고 임수경 어린 여학생이 이 板門店으로 통과할데 대한 本人들의 절절한 염원을 제기했습니다.

올때는 종내 귀당국에서 승인안해서 먼 異國을 돌아서 왔고 말입니다. 갈 때 평양에서 판문점 가겠다. 그래서 본인의 제기대로 우린 다 가라

고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귀 당국에선 오지 말라고, 美國側에 절대 통과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그거 겨우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거 분단의 장벽이 얼마나 두꺼우면 나 어린 학생이, 여학생이 자기 집으로 가는 거 이것도 가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分斷의 障壁에 대해서, 분단의 장벽에 대해서 정확히 우린 理解할 必要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느쪽이 開放이 됐고 어느쪽이 閉鎖가 됐는가?

그 다음에 보슈, 우리 지금 이쪽의 平和大行進에 대한 거 지난해 우리쪽에 外國人들이, 수많은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하난 白頭山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난 濟州道 漢拏山에서 출발하기로 했는데 우린 다 통과해서 한라산까지 가겠다 우리측을 통해서.

저쪽은 漢拏山 아예 원천봉쇄하구요. 그 다음에 범민족대회, 학생회담, 판문점으로 나오는 거 다 가로막고, 이거 무슨 어느쪽이 閉鎖가 되고 어느쪽이 來往을 가로막습니까?

이것이 바로 분단의 장벽으로 해서 조성된 문젯니다. 그래서 開放됐나 閉鎖됐나, 자유래왕 있느냐 없느냐 이거 저 정확하게, 현실을 정확하게 보시고 이렇게 할 必要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마는 그저 제 소견을 그 정도로 이야길 하고 그 다음에 내 조금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야기 하겠어요. 조금 이야기 하겠으니 좀 들어보시요.

우리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이쪽에 오늘 會談에서 우리 제기한거는

콘크리트 障壁을 제거할 데 대한 問題,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問題 이거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사실 이 콘크리트 障壁을 제거하는 問題하고 팀스피리트 合同軍事演習 中止할 데 대한 문제는 이거 正當한 것인데, 이 두가지 문제는 다 놓고보면 이게 지금 쌍둥이 유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이미 다 이야기 했지만 우리 70年代 들어서면서 두개 조선정책을 貴側이 선포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對內的으로는 維新體制 강화하고 對外的으로는 교차승인, 유엔 동시가입 제창하고 北南關係에서는 콘크리트 장벽을 쌓고 한쪽에는 팀스피리트를 벌려놓고 이렇게 죽 했던말입니다. 이게 바로 두개 조선정책에서부터 나온 유물입니다. 두개 조선정책 산물이고, 대결정책의 산물이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問題를 없애버려야, 없애버려야 우리가 이 統一의 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기하면서, 그래서 이 問題에 대해서 내 길게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한가지 이야기 하겠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障壁 問題와 관련해서 우리가 장벽은 허물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우리 내외 인민들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얼마나 이거 지금 反應이 좋은지 압니까? 이거 당장 허물어버려야 되겠다고, 그런데 이거 많은 수백, 백수십 개 나라에서 제기됐는데 내 그 중에서 딱 시간상으로 두가지만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 보시요. 노르웨이 新聞엔 이렇게 썼습니다. 「조선의 장벽」 이런 제

목으로, 『눈에 보이는 장벽 뿐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장벽도 허물어지는데 세계적으로 제일 긴 政治的 對決의 障壁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것은 朝鮮을 둘로 갈라 놓은 5~8 m 높이의 길이 240 km 나 되는 콘크리트 장벽이다. 남조선당국이 障壁의 存在를 拒否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만 더 引用합니다. 이탈리아 新聞은 뭐이라 썼는가? 「이제는 조선의 장벽 차례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논평을 썼는데 『朝鮮의 콘크리트 障壁은 38도선상의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240 km 구간에 構築돼 있다. 문제는 이 장벽을 북쪽 사람들이 아니라 남쪽 사람들이 10년 전에 構築하였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이 障壁이 무너질 차례이다.』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事例는 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러면서 내 명백히 한마디할 것은 뭐인가. 貴側에서도 우리 유엔 總會에서 연설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한게 있는가 하게 되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 分裂의 障壁을 개방한데 대해 이런 것들을 이야기도 좀 하고 하면서 뭘 이야기된게 있는가 하면 유엔 總會演說에서 대결구조를 종식시킬데 대한 問題 상정하면서 서로 가르는 壁을 허물어 서로 개방할데 대한 문제 壁을 허물어서 개방한다. 이거 壁을 허물려 하게되면 콘크리트 障壁부터, 이거 제일 견고한 壁인데 이것부터 허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 다 우리 이야기 했지만 이거 뭐 다른 나라에서 장벽을 허무는거 歡迎한다. 이랬으니까 응당히 朝鮮에서 제 땅에 있는 장벽부터 허물 생각을 하는게 좋겠구요, 그래서 장벽문제 그만합니다.

그러면서 내 팀스피리트, 시간 없기 때문에 간단히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팀스피리트 여러가지 우리가 왜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가 다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명백히 할 것은 宋先生 우리가 조국통일 3대원칙 있지
않습니까? 조국통일 3대원칙은 自主, 平和, 民族大團結입니다.

이거 外勢를 끌어들이 가지고 동족을 반대하는거 이거 자주적 원칙에
위반됩니다. 이렇게 외세를 갖다 하면 안됩니다. 平和的 方法으로 하자며
는 특히 자주적 원칙, 국제사회가 다 좌우지간 自主化의 길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안하겠습니다.

그 다음 平和的으로, 平和的으로 하자면 우리 대결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軍事政策이 平和的 原則에 맞습니까 軍事政
策이. 그 다음에 平和的으로 하자며는 對話·協商을 바로 발전시켜야 되
는데 지금의 우리 對話도 다 지금 무르익어서 이제 결실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또 올해는 우리가 우리측에서 障壁을 除去하고 自由往來하고 全面開放
할 데 대한 劃期的인 방안, 統一方案을 내놨는데 이거 얼마나 좋을 땀
니까?

이거 이와같이 그렇기 때문에 팀스피리트 계속하게 되면 우리 대화도
아주 위태롭게 빠져,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화적 방법으로 하자며는 이거 3대원칙 놓고
봐도 우리 民族大團結, 民族大團結 하자면야 이거 동족을 말이야 대화일
방을 武力으로 이렇게 행사하고 어떻게 民族大團結이 되겠습니까?

난 다른 論據는 다 그만두고서요, 그만두고서 北과 南이 合意한 祖國 統一 3大原則 특히 北南關係를 고찰할 때는 언제나 이 3大原則을 基準으로 해서 딱 재 봐야 된다. 이걸 내 從前會談에서도 強調한게 있습니다. 이걸 떠나서 아무리 뭐이라 그래도 절대 안된다는거.

그러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제기하는게 뭐인가, 우리가 이미 제기한 이거 팀스피리트 合同軍事演習 관련해 3가지 要求를, 조치를 취할것을 제기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받아 들이면 實務節次問題에 빨리 들어갈 수 있게끔 모든 問題가 원만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要求를 받아들일 걸 이걸 정중히 다시 한번 提起를 합니다.

南(朴鍾權) : 알겠습니다. 내 答辯을 드리지요 .

北(김영철) : 朴鍾權先生, 3가지 要求에 대한 對答해야 됩니다. 팀스피리트 中止할데 대한 對答해야 됩니다.

南(朴鍾權) : 軍事代表로서 있지도 않는 콩크리트 장벽문제, 장벽문제에 대한 진실성과 또 答辯을 하고 있는 팀스피리트 문제에 대해서 軍事代表로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會談成事를 바로 앞두고 사실 있지도 않는 이 장벽을 헐어 무너뜨리자고 主張하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遺憾스럽습니다.

또 팀스피리트를 가지고 전 국민이, 온 겨레가 회담성사를 바라는 念願을 저버리는 그런 貴側의 會談 자세에 대해서도 疑心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팀스피리트 以前에 군사분계선 남쪽에 콩크리트 장벽을 철거하라

는 貴側의 主張, 김일성 신년사에도 언급이 됐고, 김영철 대표! 김양권 소장도 동기요? 거기가. (김영철 대표에게).

北(김영철): 아, 아무렇게. (웃음).

南(朴鍾權): 예, 내 장장 30分 소비하는것을 봤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것은 事實이 아닌것을, 眞實이 아닌것을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眞實이 아닌것을 眞實인체 보도를 하고 또 그것이 마치도 分斷을 가로막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양 이렇게 정치선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遺憾스럽습니다.

명백히 말하건데, 한반도 우리 休戰線에는 그런거와 같은 분단된 도시도 없고 철책도 없습니다. 다만 있다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南侵을 우려하는 對戰車 障礙物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休戰線에 철책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事實은 貴側에도 대전차 장애물과 유사한 장애물이 있고 철책이 있습니다. 그 철책은 다중화로 깔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南北間의 現實입니다.

철책의 構築도 貴側은 1965 年度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10년후가 지난 후에도 그것을 겨우 방벽을 막기 시작했고, 이러한 것들은 다만 南侵을 막는 대전차 장애물로써의 構築이 돼 있고 人的往來를 가로막는 그러한 障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편지한장 오고갈 수 없는 남북간의 상황입니다. 故鄉訪問團 200名, 300名 그 한건, 한 라램을, 염원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南北間의 政治狀況입니다.

問題는 그러한 있지도 않는 障壁의 문제가 이것을 가로 막는 것이

아니고, 오래동안 쌓여왔던 敵對感과 不信感이, 이러한 정치상황이 그러한 정치적인 갈등의 장벽이 가로 막혀서 우리가 往來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최우진 대표께서도 임수경이가 오고가지 못한 그러한 것은 철근의 콘크리트 장벽이 아닙니다. 정치상황의 장벽이지 그러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듭컨대, 休戰線 南側에는 往來를 가로막는 그러한 콘크리트 障壁이 없습니다. 기필코 貴側에서 自由往來를 원하고, 참된 개방을 원한다 그러면 그것은 이會談을 하루속히 成事시키고 總理會談을 비롯해서 頂上會談을 발전시켜서 通商과 通信과 通行의 협정을 맺는데 호응해 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國民이 원하는 自由往來와 전면 개방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資料들을 원한다고 그러면 資料도 提示할수가 있고 貴側에서 오고 그런다고 그러면 같이 調查團을 구성하고, 이러한 문제를 명백히 밝히고.

또 팀스피리트 訓練問題에 대해서 侵略訓練이다, 戰爭準備訓練이다 하는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팀스피리트 訓練이 왜 되었으며, 어떠한 성격의 훈련인가를 확실히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해야 됩니다.

팀스피리트 訓練은 貴側의 과도한 군사적인 威脅으로 인해서 조치된 우리 大韓民國 政府의 자위적인 訓練입니다. 이것은 연례적으로 한·미 合同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위훈련입니다.

貴側도 4年前부터 청진과 나진 앞바다에서 대규모 朝·蘇訓練을 하고 있습니다.

國家가 있으면 軍隊가 있는 것이고, 軍隊가 있으면 반드시 訓練을 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또 同盟國間에는 聯合訓練을 하는 것이 국제적인 상례이고 또한 상식적인 이야깁니다.

問題가 된다고 할때에는 그것이 어떤 訓練의 성격이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격훈련이나 방어훈련이나. 公開裡에 하는 것이나 秘密裡에 하는 것이나, 팀스피리트훈련은 公開裡에 방어훈련입니다. 방어성격의 訓練인 것입니다.

問題가 되는 것은 秘密裡에 하는 공격적인 訓練인 것입니다. 貴側은 왜 秘密裡에 그 訓練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팀스피리트訓練을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의 威脅的인 하나의 軍事的인 要因은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1962년 로동당 4期5次 全員會議에서 採擇이 된것인데 혹시 뭐냐고 한다면 그것이 4대군사노선입니다. 맞습니까. 4대군사노선?

北(김영철) : 7·4 共同聲明 以前이지요? 62年이니까.

南(朴鍾權) : 예 그렇습니다.

北(김영철) : 역사를 잘 알구 말씀해야 됩니다.

南(朴鍾權) : 4大軍事路線이 지금도 적용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나? 全人民의 무장화, 대단히 위협적입니다. 全國土의 요새화, 全軍의 간부화 그리고 全裝備의 현대화 이 네가지의 군사노선은…….

北(최우진) : 全障壁요?

南(朴鍾權) : 全裝備! 裝備.

北(최우진) : 잘 모르시군만요.

南(朴鍾權) : 그 다음 4대노선은.

北(김영철) : 뜻을 理解할 수는 있어요.

北(최우진) : 아, 보시고 하십시오.

南(朴鍾權) : 아, 볼 필요도 없어요. (北側代表團 웃음)

南(金三勳) : 南北間에 표현의 차이가 많아요.

北(최우진) : 표현의 차이는 인정해요.

南(朴鍾權) : 그러한 軍事路線을 採擇해서 오늘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威脅的인 하나의 가시적인 것은 貴側이 갖고 있는 兵力, 약 100 만에 가까운 그 兵力, 탱크 3,500 대에 가까운 공격무기, 미그-29 최신 전투기를 비롯해서 약 850 여대의 전투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야 말로 4大軍事路線과 威脅的인 거대한 軍事力이 무엇을 위해서 존속시키고 발전시키고 있는 것인지 우리로서는 그러한것에 대단히 軍事的으로 威脅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위협요인을 안고 우리는 防禦的 訓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貴側이 갖고 있는 약 65%의 全兵力이 休戰線 가까이 南進配置가 되어 있습니다. 공격무기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대단히 근본적인 問題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의식하면서 威脅을 느끼면서 軍事訓練 즉 그러한 防禦的인 訓練을 年例的으로 하고 있습니다.

北(최우진) : 南朝鮮軍隊 우리 軍隊보다 숫자도 더 많은데 美軍 안 끌어 들여도 되겠는데 뭐, 안끌어도 돼요.

南(朴鍾權) : 그래서 이러한 상호문제를 인식하고 서로 理解를 하고 서로 軍事的인 威脅을 배제하는, 상응하는 조치가 따른다고 그러면 팀스피리트 訓練도 자연적으로 劃期的인 조치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이러한 군사적인 조치가 하나도 없는, 군사적인 信賴措置가 없는 가운데에서는 전혀 받아들일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本會談을 성사시키기 위해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努力해 왔습니다. 이 막바지 마무리 단계에 와서 會談과는 별개의 이런 문제, 팀스피리트 問題, 콩크리트 障壁問題를 가지고 會談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외면한다는것은 國民의 念願에 우리가 반하는 바가 아니냐? 또 이런것은 貴側에 問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事實이 아닌 상황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헤아려 보면서 진지한 자세로 오늘 會談을 종결 지었으면 합니다.

北(김영철) : 내 한가지만 이야기 합시다.

南(宋漢虎) : 節次問題 討議합시다.

北(김영철) : 내 한가지만하고 절차문제를, 宋先生! 절차문제와 한가지이니까, 의제문제와 한가지이니까 난 討論하자는데 반대없습니다. 軍代表가 이야기 했기 때문에, 팀스피리트도 軍隊問題고 해서 내 한가지만....

南(宋漢虎) : 그런데 그 팀스피리트 問題, 아까도 首席代表가 이야기 했는데 작년 1次會談하고 2次會談때 이야기를 되풀이 하는것 같애. 녹음을 한걸 그냥 트는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北(김영철) : 내 이야기 할게요.

그런데 팀스피리트 合同軍事演習問題를 우리가 오늘 왜 다시 거론하는

가 그걸 잘 알아야 해요.

우리가 금년도 新年初에 우리 위대한 수령님께서 획기적인 統一方案을 내놓았습니다. 統一方案을 내놓자마자 「팀스피리트 90」合同 軍事演習 앞 당겨서 發表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平和的으로 統一하자는 意向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이고, 우리 會談과 관련해서는 우리 會談에 거의 마지막 고비에 들어 섰다는 말입니다. 이젠 議程 한가지만 討論하면 다 합니다.

그런데 왜 어쨌든 우리 會談에서 政治軍事的 對決狀態解消問題를 의정 문제에 合意해 놓고 또 팀스피리트 合同軍事訓練 '90 計劃을 發表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軍代表가 여기서 무슨 4大軍事路線이 어떻소 우리 兵力이 어떻소 이걸 내가 구태여 대답안하겠습니다. 내가 후에 가서 간단히 한마디만 이야기 할 것이고.

그러면 팀스피리트 訓練이 진짜 그쪽에서 말하는 것처럼 방어적인 훈련인가, 또 그게 무슨 우리 때문에 조직한 訓練인가 그걸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1次會談때도 이야기했고 2次會談때도 이야기 했고 여러차례 기획에 南側에 전달되었습니다.

팀스피리트 合同 軍事演習은 그것을 발달시킨 정책적인 기초를 놓고 볼때면 분명히 美國 사람들이 주도하는 戰爭 演習입니다. 팀스피리트合同 軍事演習은 內容과 그 進行過程을 파헤쳐 놓고보면 분명히 外勢와 손을

잡고 동족인 우리를 반대하는 事大的인 攻擊演習이다.

南(朴鍾權) :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北(김영철) : 그 다음에 연습에 동원되는 장비라든가 兵力數를 놓고 보면 우리 民族을 核戰爭의 참화속에 몰아넣는 核戰爭演習이다.

이건 우리가 그쪽에 알아듣고도 남으리 만큼 說明을 했습니다. 이걸 否認하는것은 軍事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걸 否認하는 사람은 政治를 모르는 사람이다. 민족주체성의 견지에서 놓고 볼 때 제나라 제 땅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이 올해 다시 벌어지고 있는데 올해 벌어지는 연습도 틀림없이 그거는 侵略戰爭演習이고 核戰爭 演習이다.

그런데 그 위험 도수에서 그 공격적인 性格에서는 다른해의 팀스피리트 훈련보다 더 진하다 왜 그렇게 우리 말하겠습니까?

그건 지금 北南사이에 進行되고 있는 일체 對話를 가로막는 기본 요인이기 때문에 政治的인 것으로 놓고 보아도 위험한 연습이다. 軍事的으로 놓고 볼때는 더 더욱이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軍事的으로 놓고 볼때 어떻게 위험한가?

하나는 美國 사람들이 世界 모든 나라 전선은 정세를 완화시키면서 유독 朝鮮반도에서만 벌이는 戰爭演習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美國에서 「부시」가 내놓은 政策이 뭔지 아십니까? 「부시」가 내놓은 政策은 自由民主主義가 지배하는 世界를 만든다는 아마 자유세계론, 신세계론입니다. 이런 세계론에 따라서 큰 나라 정도는 어물쩍

하고 우리 조선반도 같은데서는 정세를 긴장시킵니다.

分明히 하지만 한 地域에서의 긴장완화는 다른 地域에서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킵니다.

이런 意味에서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은 매우 위험하다. 실질적으로 완화된 地域에서 병력과 무장장비를 조선반도의 연습을 口實로해서 무작정 끌어들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이게 첫째 위험성이요.

둘째 왜 위험하다고 하는가?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놓고 볼 때 실질적으로 조선반도 주변에 美國 사람들의 무력이 증강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서 벌어지는 연습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알래스카地域에 美 陸海空軍 兵力이 있었는데 어느나라 하고 대결이 됐던 겁니다. 이게 최근년간에 조선반도를 지향한 태평양군에 作戰적으로 소속이 되었지요?

南(朴鍾權) : 우리 軍事會談이 아니기 때문에.....

北(김영철) : 아니, 내 말을 들어시요. 軍事會談이 아니예요. 오끼나와地域에 군사력을 증강했고 이미 리비아에 미국사람들이 폭격한것과 똑 같은 F 111 비행기가 좀 있으면 오끼나와에 배치됩니다.

7 함대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作戰地域을 조선 동해에다 바싹 앞당기라 작전함대의 회수를 높이라』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이 바로 이런때 벌어집니다.

무력증강과 때를 같이한 합동군사연습 위험합니까? 파나마에 대한 美國의 침공도 演習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연습과 배합된 무력 침공으로 파나마를 하루아침에 먹었다 하루 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위험하다는 겁

니다.

또 우리가 왜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이 올해에 벌어지는게 더 위험한가?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올해 연습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보다 더욱더 공격적인 것으로 보충되었습니다.

내 다른 訓練內容은 얘기 안했습니다. 특수작전훈련 이번에 豫見되어 있습니다. 美國 사람들이 만든 교범에 特殊作戰部隊라는데 뭐로 되어 있습니까?

『상대측 중심에서 습격, 교란, 파괴, 심리전을 하라는 命令과 기재의 집단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랬습니다. 상대측 중심이란게 어디입니까? 또 그쪽에는 特攻隊인데 공수특전대는 공화국 북반부를 道別로 作戰地域을 할당받고 있어요. 이 부대들이 訓練에 동원됩니다. 방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南(金保鉉) : 그렇게 위험한데 어떻게 15萬을 감축했다고 그래요?

北(김영철) : 가만, 내 發言이 다 끝난 다음에 얘기 하세요. 그래서 美國 사람들이 언제나 남의나라 먹을때는 언제나 報復이요, 反共이요 하는 말을 썼습니다.

美國이 말하는 報復속에는 언제나 침략이 있습니다. 美國이 말하는 억제속에는 戰爭이 있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이 우리 對話에 障礙되는거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가지 조건을 받아 들이라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제 朴鍾權代表가 훈련이 公開의이나 非公開의인가 하는데 따라서 위험성이 더 있다. 비공개적으로 하는 훈련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아주 옳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그 말씀은 정확하지가 못하다. 공개적인 訓練도 위험한게 있다. 같은 地域에서 같은 때에 같은 規模로 하는 연습은 相對方을 속이는 전략적 기만행동이다.

전략적 기만행동은 군사에서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不意 攻擊, 不意 打撃 때만 있습니다. 그러면 팀스피리트 合同軍事演習이 실질로 공개연습인가? 우리한테 참관을 초청한다고 해서 그게 공개 연습인가? 規模를 발표하고, 期間을 발표했다고 해서 공개적인가?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은 公開하는것처럼 하면서도 非公開的으로 秘密訓練입니다. 왜 秘密訓練이라는거 내 말씀하시겠습니까? 얘기할게요.

왜 非公開訓練인가? 그쪽에서는 지금 팀스피리트훈련과 관련한 보도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쪽에서는 팀스피리트 抵抗되기 때문에 直昇機로 나르고 있어요 秘密이 셀까봐. 또 팀스피리트 군사연습에 대한 일체 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은 왜 秘密訓練인가? 우선 이 연습이 美國이 정책적 기도를 숨기고 하는 연습이다. 美國의 정책적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남녘땅을 영원히 타고 앉겠다는 겁니다. 둘째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공화국 북반부를 먹겠다는 겁니다. 세번째 기도는 뭔가. 조선반도 전체를 가지고 大國들과의 對決에 써 먹겠다는 겁니다.

美國이 백번 변해도 이 政策的 基本은 조선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은 정책적 기도를 秘密裡에

부치는 그런 연습이다. 그러기 때문에 秘密訓練이다.

또 하나 얘기 합시다. 팀스피리트 합동군사훈련에서는 군사작전기도를 숨기는 훈련이다. 내 하나 실례를 들지요.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은 한미연합작전계획에 따라서 공화국 북반부를 치기 위한 작전계획을, 현실성을 검토하는 그런 연습입니다.

그쪽 2군단장 작년에 팀스피리트 훈련장에서 뭐라고 얘기 했는줄 압니까? 장성들에게. 팀스피리트訓練은 北에서 싫어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팀스피리트訓練은 北에서 가슴아파하는 訓練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장병들은 백두산에 태극기를 꼽는 心情으로 訓練하라. 軍事的 企圖가 무언가? 白頭山에 태극기를 꼽는 그 심정이 軍事的 企圖입니다.

南(朴鍾權): 팀스피리트를 만든 장본인은 누군가?

北(백남준): 가만이! 朴先生님.

南(朴鍾權): 팀스피리트를 만든 그 장본인은 누군가?

北(김영철): 팀스피리트 合同軍事演習의 이런 軍事的 企圖는.

南(朴鍾權): 이런 南北間의 危機感을 고조시킨건 누군가?

北(김영철): 언제나 은폐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本質에 있어서 팀스피리트合同軍事演習은 公開되는 것 같지만, 秘密裡에 벌어지는 訓練이다. 그쪽의 論理대로 한다면 그쪽으로 할려면 팀스피리트가 非公開라는 의미에서도 危險한 問題입니다.

우리 非公開訓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내가 대답하지요. 우리 非公開訓練은 우리는 88년도에 南北對話를 尊重하는 의미에서 대연합부대 이상의 訓練은 안한다는 것을 주동적으로 宣布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대연합부대

이상의 訓練은 事實上 없소. 그러기때문에 公開할만한 것도 못된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 안하는 거요.

그러나 南側에서는 우리가 팀스피리트訓練 하나만 거론하니까, 그것뿐 인줄 압니까?

금년 1月달에 「포커스클리에」 訓練했죠? 公開했습니까? 韓·美聯合訓練, 해마다 8月달에 하는 乙支「포커스렌즈」 公開합니까?

南(朴鍾權) : 하지요.

北(김영철) : 안합니다. 空軍에 있어서 잘 알겠지만, 「코프선더」 訓練을 公開합니까? 안하지요. 「코프제이드」 訓練을 公開합니까? 안하지요. 非公開訓練은 오히려 더 많습니다.

南(朴鍾權) : 다 公開를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北(김영철) : 그 다음에 우리 軍事力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軍事力에 대해서 무슨 땅크가 3,500 대요 우리 軍事力이 200 萬이요하는데, 나 도 우리軍隊에 3,500 대인지, 100 萬인지 모릅니다.

南(朴鍾權) : 그러니까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단말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北(김영철) : 아, 한가지만 얘기하겠는데 우리 軍事力은 우리 人民과 우리 領土와 우리 國權을 지킬수있는 이런 準備된 일정한 정도의 武力이 있어요. 난 그건 不認 안합니다. 일정한 정도의 武力이 있다.

그 準備된 武力의 準備狀態를 놓고 우리 人民들이 일당 백이라고는 말합니다. 하나가 백을 당할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혹시 일당 백이라는 말을 잘못새겨서 백만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되 우리한테는 그렇게

없습니다.

내가 알전데는 무슨 全民, 4대軍事路線을 무서워하는데, 우리 共和國 北半部 人口가 한 천만됩니다. 다 무장해도 천만입니다. 내가 알전데는 그 쪽이 현역사단, 예비역 뭐 이렇게하면 천만이 넘습니다. 거기다 미국군대 까지 합하면 오히려 우리가 北侵威脅을 받습니다.

말을해도, 朴鍾權先生! 責任的으로 發言해 주십시오.

南(朴鍾權): 아, 내 責任있게 發言했어요. 그리고 내말 들어봐요.

北(김영철): 아니 말이 끝난 다음 얘기해야지, 그렇게하면 재미없단 말 이야. (雙方代表 웃음) 끝으로 내 말하는데 그러지 말고, 朴鍾權先生 상당히 성급하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 말하는 것 우리 단장이 얘기하는데, 세가지 要求條件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지하라. 하나는 境內에 들어온 장비를 끌어내 가라, 세번째는 軍事訓練을 하지말라는게 아닙니다. 하겠으면 남조선 군대 만 가지고 해라. 말하자면 남조선군대가 軍權을 쥐고하라 이겁니다.

軍權은 나라의 大權인데, 南朝鮮 軍隊만 가지고 하라 이겁니다. 요거만 하면, 요거만 받아들이면 實務節次問題 討議를 …….

南(朴鍾權): 내 責任있는 發言을 할게요.

팀스피리트訓練, 전향적으로 우리가 檢討를 하겠어요. 그런데 條件이 있어요 條件이 있어.

北(백남준): 가만, 아니 가만이 좀 계시요. 아니 가만이 계시요. 아니 얘기 다들어보구서.

南(朴鍾權): 얘기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팀스피리트訓練 問題가, 이렇게

威脅的이라는거 …….

北(최우진) : 가만있어요. 12時 15 분이요. 12時 15 분인데, 뭐 團長들 이렇게 하라고 하는게 어때요?

南(金三勳) : 뭐 12時 15分 이지마는 4次때도 發言을 안하고, 5次때도 發言을 안하고.

南(宋漢虎) : 우리 金代表 한번 합시다.

南(金三勳) : 우리 이 對話가 정말 誠實性, 眞實性을 가지고 對話를 통해서.

北(최우진) : 간단히 말씀하셔야지.

南(金三勳) :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는 하긴 해야죠.

北(최우진) : 요 다음, 요 다음번에 發言할 때 많이 주지 뭐. 發言權 …….

南(金三勳) : 간단히 할테니까, 간단히 할테니까.

北(최우진) : 예, 간단히 합시다. 12時 15분이야요.

北(최성익) : 그저 中止하겠다는 두마디만하고 實務討議에 들어갑시다.

南(金三勳) : 들어보십시오. 우리 정말 여러가지 事案에서 보면, 시각과 認識의 差異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최우진대표가 4次會談했을때 그거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 그쪽에서 統一, 自由往來, 全面開放 말로 좋은 얘기들 다하시고, 우린 뭐 여기에 대해서 反對하는 사람 하나없고 一貫되게 그와같은 立場을 취해왔는데 그런데 이것이 말로만 해가지고, 말로만 현혹시켜서 될일이나 하는걸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정말 생각을 해보자.

南北韓은 戰爭을 했고, 40年 以上 分斷이 되어 가지고 서로 不信과

對決이 심화되어 있는 狀態인데 그렇게해서 믿을 수가 없는 상태로 되어있는 사람들을 말로만 가지고 전원이 自由往來하고 開放하고 統一하고 그러자고 됩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됩니다.

南北韓은 분명히 國際社會에서나 우리 南北韓間에 있어서나 實體로서 存在하고 있어요. 實體로서 存在하고 있는것을 認定을 하고 그 바탕위에서 段階를 거쳐가지고 쉬운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自由往來하고 全面開放하고 統一을 다룰 수 있는 與件을 조성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貴側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말로만 현혹을 시켜가지고 統一하고 自由往來하고 全面開放하자, 할 수 있는 與件造成을 해나가야죠.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

北(최우진) : 무언가 하니 우리가 提起한 것. 그쪽에서 받아들이라고 …….

南(金三勳) : 우리가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여기서 1年동안 豫備會談 왜 해왔습니까?

政治·軍事問題, 協力·交流問題, 南北韓間的 제반문제를 總理를 團長으로한 代表들이 모여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자고 해서 해왔는데, 오늘 여섯번째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貴側은 1次, 2次, 3次, 4次, 5次, 6次 올때마다 一貫되게 一貫性이 결여된 立場으로 한번은 어떤 會談에서 와서는 또 '팀스피리트問題'를 올려놓고 節次問題 討議를 거부하고 얘기를 안하다가, 또 한번은 문익환, 임수경이가 어때가지고 討議를 거부하고.

또 4次, 5次에 가서는 상당히 會談을 成事시켜 보려는 태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認識이되어서 참 나도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本人이 4次, 5次 會談에서는 發言도 자제를 하면서 우리가 하루빨리 이것을 成事시키자 하는 一貫된 立場으로 나갔는

데.

이 새해가 90년대에 들어와서, 대망의 새해에 들어와 가지고 오늘 한 30분이면 끝나고 이 합의書 草案까지 우리가 다 갖고와 가지고 하나씩 교환해서 文案을 協議하려고 그랬더니 콩크리트障壁, 있지도 않는 障壁을 이런 식으로 이 會談을 끌고 갈려는 貴側의 그럴수 밖에 그 立場과 어려움에 대해서 참 동정이라고 그럴까 그러한 理解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도 정말 유감스럽고 실망을 금치 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會談에 임하는 자세가, 우리 두개가 분명히 南北韓이 實體로서 存在하고 있다는 그 事實을 認定하고 尊重하는 바탕 위에서 相對方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國會會談 成事시키고, 이 高位級會談 成事시키고, 赤十字會談 成事시키고 제반 南北間에 進行되고 있는 會談을, 現在對話를 모두 成事시키면 交流와 協力이 되고 信賴가 構築이되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사이가 되고 그와같은 단계들을 거쳐가지고 窮極的으로는 自由往來, 全面開放도 하고 우리가 統一의 期待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우리의 立場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팀스피리트 訓練하고 關係해서도 조금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지난번 1,2次 때에도 貴側이 팀스피리트 訓練問題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도, 한발자욱도 進展을 못하고 空轉을 했을때에 2次 會談에서 왜 우리가 이 팀스피리트訓練을 시작했는가, 訓練이 시작되었는가 또 왜 계속하고 있는가 그리고 팀스피리트의 性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이 자리에서 내가 說明을 드렸기때문에 그걸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시작한 것도 威脅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고

그 威脅이 存在하는 한 우리를 지키기 위한 手段으로 이와 같은 訓練을 계속 할 수 밖에 없다.

아까 우리 김영철代表가 「부시」大統領을 引用하면서 緩和와 緊張, 한쪽에서는 緩和를 圖謀하고 한쪽에서는 緊張을 圖謀하게 팀스피리트를 한다고 그랬는데 팀스피리트訓練이 「부시」大統領이 들어와서 시작한 거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1976年부터 시작한 거예요. 왜 시작했느냐?

北(최성익) : 政策은 危險性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北(유성철) : 그게 무슨 의의가 있어요 예? 장장 15年 동안이나 하면서 「부시」大統領이 시작하겠다는 것이 무슨 의의가 있어요?

南(金三勳) : 들어보세요. 1975年 4月 월남 敗亡한 이후에 또 이어서 75年 北京宣言이 있었고 그 이후 76年 板門店에서 도끼에 의한 美軍 殺傷事件도 있었고 이와 같은 문제들이 계속되어 나왔기 때문에 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性格에 대해서 말이죠. 防禦的이나 攻勢的이나 貴側은 그러는데 우선 用語부터 正確하게 쓰세요. 侵略戰爭이면서 뭐 이런 用語를 쓰시는데 그게 아니라 있을지도 모르는 戰爭을 豫防하기 위한 戰爭豫防・防止演習 그것을 確實하게 理解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여러가지 軍事的 側面에서 이게 攻勢的이다 하는 이유를 說明을 했지만은 訓練을 하는 우리들이 더 잘알지 貴側이 더 잘 알겠어요?

北(최성익) : 지금 科學의 時代입니다.

南(金三勳) : 그리고 우리는 公開된 社會예요. 모든 것이 公開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82年 이후 우리가 貴側에서 와서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와서보면 百聞이 不如一見인데 와서 보는 것은 拒否하면서 功勢的 訓練이 아니고 있을지도 모를 戰爭에 대비하고 豫防하기 위해서 하는 訓練을 가지고 그것을 功勢的 訓練이다.

南北對話와 연관도 없는 것을 10 몇年間 해오던 우리가 自衛手段으로 써 해 오고 있는 訓練을 가지고 어떤 때에는 對話에 임했다가 어떤 때에는 對話의 場에 나와서 이것을 놓고 실질적인 문제의 進展과 討議를 拒否하고 이와같이 一貫性이 결여된, 貴側이 一貫性이 결여된 立場을 취해 왔다.

北(유성철) : 아니, 그쪽의 最高當局者가 1月10日날 팀스피리트問題하고 對話하고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 障礙로 된다고까지 말했는데 무엇을 여기와서 자꾸 그리 변명을 하세요! 그것을 뒤짚어 엮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南(金三勳) : 들어보세요. 그것도 說明을 드릴테니까. 한적도 없고 意思도 없고 能力도 없고 大統領이 분명히 해 왔을 뿐만 아니라, 1988年 10月 盧泰愚大統領께서 UN에서 한 演說에서도 이 北側에 대한 武力不使用을 對内外에 분명히 闡明을 하셨어요.

北(유성철) : 그래 팀스피리트 안하면 武力不使用도

南(金三勳) : 危險이 存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안하기 위해서는 原因을 除去해 줘야돼요. 原因을 除去하려는 努力은 았고 그 原因을 提供한 쪽에서 結者解之라고 그러죠. 問題를 提供한 쪽에서 原因을 제거해 주며는 자연히 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美國의 얘기를 하시는 데 美國도 1949年에 한반도에서 다 나갔던 軍隊예요. 6.25 때 UN軍이라는 깃발하에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存

在하는 겁니다.

北(최성익) : 뭐 美軍이 貴側의 할아버지입니까?

南(金三勳) : 그래서 美軍에 대한 얘기를 더 이상 貴側이 얘기해 봐야 정당성이 부여가 되지를 못해요.

南(金保鉉) : 유대표! 조용히 합시다.

南(金三勳) :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南北對話를 誠實하게 해 가지고 對話를 통해서 그 對話의 立場에서 하나하나 交流・協力을 하고 信賴를 回復하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해 나가면 自由往來・全面開放・統一의 길이 오는 겁니다. 그와같은 立場에 처해 있는 겁니다.

아까 正初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立場으로서 보려는 팀스피리트訓練이 南北對話나 緊張緩和, 緊張高潮와 아무런 問題가 없다는 立場을 분명하게 밝혀왔고 威脅이 있는 한 訓練을 계속한다는 立場도 분명히 밝혀왔어요.

그러나 貴側이 팀스피리트를 理由로 해서 一方的으로 對話를 中止하고 延期하고 여러번 그런 거를 해오니까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최대한의 誠意로써 우리 盧泰愚大統領께서 一方的인 誠意의 表示로써 이와같은 規模를 縮小하고 한다는 措置를 發表를 했는데 이것을 오히려 거꾸로 南北對話에 障礙가 된다고 貴側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우리의 이와같은 規模를 縮小하는 이러한 성의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감사를 하고 해야지 오히려 會談場에 나와 가지고 다시 팀스피리트問題를 놓고 對話의 進展을 가로막고 障礙다 하고 주장한다는 것은 오히려 賊反荷杖이다.

貴側이 팀스피리트를 가지고 이 對話를 일방적으로 中斷하거나 延期하거나 하는 구실로 사용하지 말도록 우리가 일방적인 誠意로써 그와같은

措置를 한거예요. 그걸 理解를 잘하셔야지.

北(최성익) : 中止하면 돼요, 中止하면.

南(金三勳) : 그것이 현재의 對話에 아무런 障礙가 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南北韓이 다, 아까 시각과 인식의 차이를 얘기했는데, 우리 首席代表께서도 도도히 흐르는 世界史的인 물결과 흐름을 여러번 이야기 했는데 全世界가 變하고 있어요. 和解와 協力の 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할려면 쉬운것부터 東구라과에서 東獨의 「호네커」다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다 다 變化하고 있는것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南北韓間에도 말로 뭐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쉬운것부터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이 問題를 성의를 가지고 對話를 하고 해결하는 努力을 해야 됩니다.

北(백남준) : 宋先生님! 거 뭐 루마니아 「차우세스쿠」요 獨逸 무슨 「호네커」가 어찌됐다는 거요? 이 會談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南(金三勳) : 아니 世界가 변하고 있다는거요, 세계가.

北(최성익) : 南朝鮮도 좀 이렇게 障壁허물고 변하면 어떻습니까?

南(金三勳) : 아 글썄 변해야죠.

北(백남준) : 무슨 必要에 의해서 하는 말입니까? (雙方代表 騷亂).

南(宋漢虎) : 백선생님! 그만합시다. (우리側代表를 向해) 그만하고.

北(최우진) : 야, 宋先生님 미리좀 그만하라고 말씀하실게지 말이야.(웃음)

北(백남준) : 오늘 우리가 이제 이 會談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건데는 대단히 失望스럽게 생각합니다.

왜그런가? 問題를 討議하자고 하는 이런 立場에서 출발하지 않고 賊反荷杖격으로 相對를 걸고드는 또 이 會談과는 關係가 없는 問題들까지

도 들고 나와서 이제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팀스피리트 90」 合同軍事演習을 中止할데 대해서 세개項의 要求를 提起했는데 그건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팀 90」을 안하겠다 그 措置를 취하겠다 그리고 그와 關係해서 朝鮮半島의 美國軍隊 軍事作戰裝備들을 撤收시키는 對策을 취하겠다, 그리고 최소한 軍事訓練하러거든 美國軍隊 참가없이 자체 군대만 가지고 할데 대한 措置를 취하겠다 이렇게 對答을 하면 되겠는데, 기왕지사 우리가 問題를 제기했으니까 宋先生, 이에 대한 자기 立場이나 表明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저 자꾸 자꾸 實務節次問題만 討議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우선 그 立場부터 한번 말씀해 보시오.

南(宋漢虎): 우리 立場은 다 이야기했는데.

北(백남준):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왜 賊反荷杖이라고 하는가?

콩크리트障壁은 엄연히 있습니다. 엄연히 있고. 엄연히 있는 것은 分斷의 障壁으로 있습니다. 그걸 이제 否定하실려고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아까 무슨 自由往來, 全面開放問題와 關係해서 貴側에서 이제 제기를 했는데 이제와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제사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였는데, 이 問題와 關係해서 먼저 묻고 싶은게 있어요. 뭘 묻고 싶으나, 그쪽에서 아까도 동구라파에 무슨 開放問題를 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開放이라는 概念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쪽에서 이해하는 開放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건데 開放에 대한 이해

를 잘못된것 같습니다. 아까 그쪽 基本發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교조적인 이데오로기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때가 됐다,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자면 교조적인 이데오로기의 拘束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면 자기의 體制를 고집하고 자기의 體制를 강요하려고 하는 이런걸 버려야 됩니다. 이런걸 버려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開放問題 얘기를 하면서 동구라파에서 무슨 일당독재도 뭐 세워나가고 이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래서 그쪽에서도 一黨을 만들자고 하다가 平民黨이 우린 안하겠다 그래서 아직도 野黨은 하나 더 남아 있는것 같은데. (雙方代表웃음)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뭐인가 군사팻쇼를 保守로 위장한 長期執權의 政治쿠데타다 뭐 그런 소리를 합니다. 난 내가 말하는게 아니고 그쪽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쪽에서 하는 말인데.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인가? 어찌해서 우리 南北關係에서, 우리 입에서 우리 朝鮮사람한테서의 開放이라고 하는건 뭐이나? 南北關係에서의 開放입니다 南北關係에서의 開放인데, 우리는 그쪽에서 일관하게 우리나라가 分割된 첫날부터 自由來往, 全面開放問題를 우리가 主張을 했는데 이제와서 그쪽에서 금년 年頭記者會見에서 歡迎한다고 한게 대단히 多幸스러운 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그러면 지금까지 自由來往과 全面開放이 안됐는가? 問題는 우리 北과 南사이에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때문에 이게 안된겁니다. 안된거야 말하자면 뭐인가? 두개 朝鮮策動때문에 안된겁니다. 이게 안되는게 다 그말입니다.

아까 또 뭐 故郷訪問團을 왜 안하느냐? 故郷訪問團은 왜 가고 싶은데 다 가지 않느냐? 故郷訪問團, 우리가 赤十字團體들 사이에서 討論해서 상징적으로 離散家族들이 自由來往을 하기 전이라도 상징적으로 하자고 한게 故郷訪問團인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1次故郷訪問團을 해봤는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결국 對決에 利用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狀況에서 北과 南이 말하자면 이런 對決이 우심한 이런 속에서 그런 故郷訪問團이라는 것도 한번 해보니까 이게 對決에 이용되는 이런 狀況에서 지금 離散家族들이 자기 고향을 가고 오고 이렇게 할 형편이 됐습니까?

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무슨 종교인 학자 이런것 제기했는데 그쪽에서 받지 않았다 왜 받지 않았는가? 그것은 아마 宋先生 저보다 더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더 잘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하고 같이 만나자던 學者들, 우리하고 같이 만나자하던 宗教人들 또 그무슨 다른 企業家들 그들이 만나자하게되면, 그게 무슨겁니까, 제한 없이 조건부없이 그들이 만나게해야지, 非政治的인 問題를 가진 그것만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것 밖에는 우린 안한다 그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統計 있습니다. 작년중에 제기된 가운데서 그쪽에서. 承認한 것이 몇이고 承認하지 않은것이 몇인가? 그 承認하지 않았다고 하는것이 바로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宋先生이 더 잘 알것이기 때문에 그냥 결론은 안하겠습니다.

그렇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무슨 問題가 얘기됐는가 하면 팀 스피리트를 왜하느냐? 이거는 팀스피리트는 분명히 南侵威脅때문에 한다.

그래서 무슨 거기에 4대군사노선 그런 問題도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防禦訓練이다 하는 問題도 나왔고 그 證示로서 우리가 公開를 하지 않느냐 非公開가 더 의심스럽다 뭐 그러고, 參觀초청문제도 제기되고 무슨 等等 이런 問題들이 提起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는 대단히 말하자면 그 쪽의 態度가 놀랍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그런가? 이 팀스피리트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또 이 팀스피리트의 目的이 어떻습니까? 그 內容이 어떠며 그것이 지금까지 北과 南 사이의 對話와 對決에 어떤 영향을 주어 왔습니까?

貴側이 이번에 貴側 最高當局者가 年頭記者會見에서 바로 팀스피리트가 北南對話에 否定的이다. 對話否定的인 것이고 이것이 戰爭指向的이라는 것을 認定을 했습니다. 認定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돼서 자기 최고당국자가 인정을 한 問題를 貴側에서 여기와서 그걸 뒤집어 놓으려 하는가? 매우 나는 理解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하고 또 말씀드립니다. 南侵威脅이 있다 하는데 貴側은 實質的으로 南侵威脅이 없다는 것을 認定을 하고 있으며, 事實도 認定을 하고 있습니다. 南侵의 威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그 진상이 마쉬진 낡은 선전 보따리입니다. 貴側이 南侵威脅이 없다는 것 다 認定하고 있습니다.

또 貴側이 뭐인가 北侵意思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貴側自體가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하면 宋先生님 대단히 놀랍다고 그렇게 저한테 반문을 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제가 證明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貴側에서 아까 무슨 軍隊數를 가지고 자꾸 얘기했는데 그런걸

가지고 해서는 그건 안됩니다. 우리는 그쪽 군대는, 그쪽의 武力은 우리 共和國 北半部의 人口에 거의 맞먹는 그런 軍事力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人口가 원래 적다보니까 兵力數가 그에 따를 수가 없는거예요. 그거야 事實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인가 美國하고 貴側하고 1對2로 이렇게 맞서 있습니다. 이런 狀況에서 南侵이 있다면 누구도 곧이 안들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십시오. 무슨 우리 武裝力을 아주 정말 위기촉발의 그런 일촉즉발의 그런 狀態의 準備狀態에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15萬名이라는 軍隊를 지금 社會主義 建設에 動員시켰습니다. 순천 비날론 工場에 가보십시오. 사리원 사리비료공장에 가보십시오. 平壤·開城 高速度道路 建設場에 가보시오. 平壤·熙川 高速度道路 建設場에 가보십시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千里길 물길 工事場에 가보시오. 우리의 人民軍隊는 지금 총을 삽과 곡괭이로 바꿔가지고 大建設에 參加하고 있습니다.

이런 軍隊가 과연 南을 치자고 한다고 해서 世上이 알아들습니까? 또 그러고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貴側에서 南侵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때문에, 내가 아까 주욱 先生이 뭐 어느때 어느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對答을 할 수 있는 나도 그런 準備가 돼있습니다. 두 페이지나 가지고 있습니다 용건만 쓴것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내 더 이제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우리가 그 수많은 平和方案을 내놓았는데 어째서 그쪽에서 그

결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언제 한번 받아들인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一方的으로 10萬餘 軍隊를 一方的으로 除隊를 시켰는데 그쪽에서 除隊시킨 일이 있습니까? 非核平和地帶를 만들자 朝鮮半島를, 어째서 이 결 應하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해 줘니까? 이것이 바로 말해 이것이 말하자면 貴側에서, 貴側에서 南侵威脅이 없다는 것을 認定하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 平和 提案에 應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貴側이 認定한거다. 威脅이 있다면야 뒷때문에 우리 平和方案 내놓았는데 그건 應하지 않는가 또 이런 平和方案을 우리가 내놓았는데 應하지 않는거는 결국 뭐인가, 北侵意慾을 가지고 있다. 北侵意慾을 가지고 있다.(우리側代表들 웃음)

南(金保鉉): 이제 그만 해듭시다. 그것이 어떻게, 간단히 하시죠.

北(백남준): 예, 아니 난 얘기 좀 더해야 되겠어요. 그건 그쪽에서 北侵意圖가 있다는 것을 實質的으로 내놓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理解가 안되고 接受할 수 없다면 내 한가지 그쪽에다 提起를 하겠어요. 우리가 聯邦制方案을 내놓았는데 그걸 그쪽에서 받아들이십시요.

聯邦制方案은 왜 思想과 制度, 體制를 그냥 公認하고 容納하는 基礎:위에서 雙方이 同等한 權限과 任務를 가지고서 두 自治政府를 聯合하는 方法으로 統一하자는 우리의 方案이 聯邦制 統一方案인데 그걸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貴側 體制를 維持하고 保存하는 그런데서 더 確固하고 鞏固한

그런 擔保가 어디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받아 못 들입니까? 貴側이 무슨 南侵威脅때문에 팀스피리트를 한다 이것은 語不成說입니다. 예, 語不成說입니다.

내 그래서 이 問題와 關聯해서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防禦訓練이다, 우리는 公開를 한다 그래 招請을 한다』 이런 말을 하기때문에 내가 이제 그 問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事實 이런 式으로, 이런 式으로 말하자면 눈감고 아웅하는 式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내 좀 이야기를 …….

南(宋漢虎): 아니 繼續하실거요? 그만 하십시오! 내가 뭐, 다 그런거죠 뭐.

北(백남준): 아니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宋先生 좀 기다리시요. 아니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보시요 그쪽에서 무슨 參觀招請이라 하는데 우리는 雙方이 지금 停戰狀態에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런 狀況下에서 參觀招請이란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런 예를 봤습니까?

우린 參觀招請 그것 안해도 우리가 다 압니다. 現代 科學이 發展해서 았은 자리에서 다압니다. 그건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정말 아까도 말했는데 서투른 僞裝術이다 그것이. 또 그다음에 그쪽에서 뭐 公開를 하기 때문에 非公開로 하는게 問題있지 公開로 하는 건 問題없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一方的으로 大規模 軍事訓練을 안한다. 하고 中止를 했습니다. 우리한테는 무슨 公開를 하고 非公開를 하는 問題自體가 애당초 提起도 안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貴側이 지금 뭔가하면 公開, 公開하는데 그 公開의

眞相을 내가 한번 말하겠오. 과연 어떤가? 우선 워인가 訓練規模를 縮小造作해서 公開를 한 겁니다.

貴側에서 지금 18萬名 가지고 今年度에는 한다 「팀스피리트 90」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保障部隊, 支援部隊를 包含시키지 않았습다. 이런 公開입니다. 또 그다음 그쪽에서 訓練날짜를 短縮해서 公開를 했습니다. 15年동안 正月末부터 벌써 시작해 가지고 4月末까지 進行하는 軍事訓練을 이번에는 워인가 移動段階, 展開段階, 復歸段階 그걸 包含시키지 않고 3月14日부터 2週日 동안 한다. 바로 貴側 訓練期間의 公開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지금 貴側에서 攻擊的인 訓練인데 이걸 防禦訓練이라고 公開한 것이 이게 바로 貴側의 公開입니다. 또 그다음에 貴側에서 워인가 軍事分界線에서 일어나는 이런 問題와 關聯해서 實況中繼를 안하고 텔레비報道를 안하는 이런 條件下에서 이 報道입니다. 이게 바로 貴側의 公開입니다.

이것으로써 貴側 팀스피리트의 攻擊性과 그 侵略性을 무슨 合理化하거나 僞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言語道斷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論點으로 提起된 이런 問題와 關聯해서 여러가지로 이제 이야기 많이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저는 워인가? 오늘 이런 마당에서 지금 우리가 提起한 問題조차도 이거 지금 그쪽의 우리가 立場表明도 없고 또 貴側에서 지금 이자리에서 우리가 提起한 問題와 關聯해서 對答할만한 그런 形便도 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會談 이렇게 앉아서 왈가왈부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만 두자는 겁니다. 그만 두는게 어떻겠는가?

南(宋漢虎) : 아니 내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만.

北(백남준) : 그래서 貴側에서 돌아가셔서 우리가 「팀스피리트 90」 合同軍事演習을 中止할데 대한 提案을 내놓았으니까 이 세개項의 提案에 대해서 우리한테 肯定的인 그런 그 對策을 取한다는 그런 것을 인차 우리한테 돌아가서 通報해 줬으면 하는 그런 期待 表明합니다.

南(宋漢虎) : 이제 우리 백先生이 장황하게 무슨 뭐 여러가지 問題를 이야기를 했어요. 뭐 팀스피리트와 關聯돼서 이야기하고 故鄉訪問團 關係가지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大統領께서 한 이야기도 이야기 하고 聯邦제도 뭐 다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答辯를 드릴게요.

北(백남준) : 예 그 다음에 내가 듣고 할게요.

南(宋漢虎) : 貴側 이제 뭐 백先生 이야기 하기를 우리 內部 政治問題까지 이야기를 하고서 그것이 무슨 永久執權을 云云한다느니 뭐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北(백남준) : 그건 내가 말하는게 아니라 …….

南(宋漢虎) : 그게 相對方에 대한 內政問題인데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도 貴側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수 있어요.

北(백남준) : 그러면 宋先生, 宋先生! 말씀을 이제 주겠는데 …….

南(宋漢虎) : 가만계세요, 가만히 계시라고! 40 餘年동안 權力을 계속해서 獨占하고 있는게 어디냐 이거야. 그건 40 餘年동안 權力을 獨占하고 있는 것이 바로 貴側 아닙니까?

北(백남준) : 저, 宋先生! 이거 이렇게 挑發하겠습니까?

南(宋漢虎) :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무슨 아니 挑發이 아니라 貴側
이야말로 우리한테 挑發한거 아닙니까?

北(백남준) : 여보시오 宋先生! 내 基本發言에 참았어요.

北(유성철) : 그쪽에서 말한것을 말하는데 무슨 挑發한다는 말이에요.

南(宋漢虎) : 무슨 참았어요? 貴側이 우리 內政問題에 대해서.

北(백남준) : 무슨 教條, 무슨 教條的인 指導力에서 벗어나야 한다. 누구
를 빗대고 한거요. 뭇때문에 東歐圈에서 一黨獨裁 그따위 소리하는거요?

南(宋漢虎) : 教條的인, 教條的인 意志가 나타났어요. 東歐圈의 現實이 一黨
獨裁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北(백남준) : 挑發이란 말이요 挑發! 엄연히 挑發이란 말이야!

南(宋漢虎) : 어디가 挑發이요! 다 무너지고 있잖아, 무너지고 있잖아요?

北(백남준) : 責任을 지란 말이야!

南(宋漢虎) : 무슨 責任을 저요?

北(백남준) : 貴側에서 會談를 하러 나왔오, 싸움하러 나왔오? 참고 있는
데 말야 참고.

南(宋漢虎) : 당신네들이야말로 싸움하러 나왔군! 東歐羅巴에서 現在 一黨
獨裁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헝가리」에서 그렇지 「폴랜드」에서 그렇
지, 「루마니아」에서 그렇지 「불가리아」에서 그렇지, 「東獨」에서 그렇
지 이거 내가 거짓말 합니까?

北(백남준) : 貴側 歷代 當局者들이 다 어떻게 됐나 말이야! 아니 民族
反逆者로서의, 民族反逆者로서의 汚點을 남기지 않고 하려면 事實말이야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南(宋漢虎) : 이거 내가 거짓말이냐 이거야! 내가 거짓말을 하느냐 이거
예요! 내가 거짓말을 했느냐 이거야!

東歐羅巴에서, 東歐羅巴에서 一黨獨裁…….

北(백남준) : 오직 事大賣國奴, 民族反逆者들만이 할 수 있는 소리다. 뭇때
문에 會談場에 와서 말이야. 첫發言文에서 걸고 들라고 말이야.

南(宋漢虎) : 그럼 내가 거짓말을 했느냐 이거예요! 東歐羅巴에서 一黨獨
裁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말이요!

北(유성철) : 言聲높이지 맙시다.

北(김영철) : 왜 걸고 들어와요?

北(백남준) : 自制를 했습니다. 自制를 하고 참고 견뎠단 말입니다.

北(최우진) : 거기 좀 참으세요.

南(宋漢虎) : 事實대로 이야기 했어요. 事實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北(백남준) : 여보시오! 내가 세살짜리 어린애인줄 압니까? 내 첫發言부
터 아주 心情的으로 기분나빴단 말이야.

그러나, 그러나 참고 견뎠어.

南(宋漢虎) : 글썸 그런데다 대해서 이제 뭐 우리 內部 政治問題에 대해
서 이야기를 하고 왜 우리의 政治問題에 대해서 是非를 하고 그걸 왜
견드려요!

北(백남준) : 내가 말했오? 내가 말했어? 貴側에서 하는 말을 했오. 누
가 먼저 견드렸오? 누가 東歐羅巴 一黨獨裁 견드렸오! 그렇게 하지 마
시오. 점잖지 못하게 말이야.

北(최우진) : 宋先生! 調整합시다.

南(金三勳) : 이제 自重합시다.

南(宋漢虎) : 그 다음에 내 또 答辯드릴게요.

貴側은 말이지 그 무슨 離散家族 故鄉訪問團 關係가 그동안에 무슨 對決을 鼓吹했다.

北(백남준) : 對決을 鼓吹했지요.

南(宋漢虎) : 어떻게 해서? 그러면 對決을 鼓吹했는데 왜 그러면 第2次 故鄉訪問團에 왜 應해 왔습니까?

北(백남준) : 내 말 안합니까. 2次 故鄉訪問團?

南(宋漢虎) :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故鄉訪問團은 별로 必要가 없다.

北(백남준) : 누가 그렇디까?

南(宋漢虎) : 아까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된거요?

北(백남준) : 여보시요!

南(宋漢虎) : 그러면 왜 離散家族故鄉訪問團問題를 協議하기 위한 會談에 나왔느냐? 그러면 必要없는데도 그러면 왜 그럼 假裝을 해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그럼 假裝해서 나왔습니까?

北(유성철) : 가만 가만 宋先生, 宋先生! 요거 懸案問題를 좁혀가지고 結束합니다.

北(백남준) : 말씀 다하셨어요?

南(宋漢虎) : 우리가 會談에 나와서 問題를 解決할려하게 되며는 眞摯하게 보다 더 誠實한 立場에 나와 가지고서 對話를 해야지, 어떻게 말이지 이 故鄉訪問團 交換이 對決을 鼓吹한 것이기 때문에 不必要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北(백남준) : 내가 立證하십니까?

南(宋漢虎) : 그러면 不必要합니까? 그러면 不必要하다면 왜 그동안에 第

2次 故郷訪問團을 위한 會談에 나왔어요?

北(백남준) : 立證하라는가 그말이요! 朝鮮사람의 피를 타고 난 사람이 뭇 때문에 離散家族들의 故郷訪問團이 不必要하겠오?

南(宋漢虎) : 글쎄 이제 백先生이 그런 趣旨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北(백남준) : 당신이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안에 앉아서 말이야 항상 저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는데.

南(宋漢虎) :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北(백남준) : 離散家族의 아픔은, 아픔은 宋先生보다 내가 더해. 나는 저 水原이 故郷인 사람이야! 말도 마시오.

北(유성철) : 人道主義 뭐 간단히 눈물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南(宋漢虎) : 하여간 어떻든간에 우리가 人道主義問題에 대해서는 . 우리가 좀더 誠意를 가지고 임해야 되겠다.

北(백남준) : 그리 말씀마시오. 왜 「꽃파는 處女」 못받아요?

「꽃파는 處女」 뭇 때문에 못받어요, 왜 못받어요?

南(宋漢虎) : 왜 그게 무슨 人道主義와 關聯이 있습니까!

北(백남준) : 왜 저 日本, 「프랑스」, 무슨 「이탈리아」 돌아다니면서 모두가 歡迎하는거 왜 못받소!

南(宋漢虎) : 貴側의 革命意識이나 鼓吹하는 그런 그 內容을 가진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北(백남준) : 그러니까 故郷訪問團 그렇게 交換하고 離散家族의 아픔 덜어주는 겁니까? 그 意志가 있는 겁니까 그게?

南(金保鉉) : 자, 가라앉히고 우리 首席代表 얘기를 들읍시다.

北(최우진) : 예, 首席代表先生 들으시요!

南(金保鉉) : 아니 최代表! 이야기를 들읍시다. 시작했잖아요?

南(宋漢虎) : 貴側이 무슨 팀스피리트 問題와 關聯해가지고서 뭐라 그랬나 하면 우리가 貴側을 侵略하기 위한 豫備的 訓練이다. 뭐 豫備戰爭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防禦的인 訓練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우리 訓練이라는건 貴側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防禦的인 目的으로 하는 訓練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 疑心스러우면 直接와서, 參觀團을 보내가지고 確認하라 그렇게 要求를 했어요.

그러면 진짜 貴側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하는 訓練이 攻擊的인 訓練이다 貴側을 侵略하기 위한 豫備戰爭이다 이렇게 생각되면 여기 와서 確認하세요. 確認은 안하고 이것을 뭐 자꾸만 이렇게 非難하고 여기 會談 節次問題와 關聯해서 會議하는 이 場所에 와서 節次問題는 論議하지 않고 팀스피리트問題만 자꾸만 꺼내고 이런것은 온당한 會談態度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貴側의 同盟國인 蘇聯도 오래 전부터 東獨이라든가 혹은 체코슬로바키아라든가 東歐羅巴 國家들하고 合同軍事訓練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 西歐羅巴의 參觀團을 招請했어요. 그래서 英國이나 불란서 등 수십개 國家들의 參觀團이 가서 다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西歐羅巴에서 하는 訓練에도 貴側의 同盟國인 「바르샤바」 條約機構 國家들의 軍事參觀團이 다 가서 보았어요.

그러면 貴側은 왜 안됩니까? 왜 못해요 貴側은? 못하는 이유가 됩니까?

貴側은 또 뭐 우리보고 팀스피리트가 緊張을 高潮시킨다고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우리 朴代表가 이야기하고 다른 代表들이 이야기했지만 貴側이야말로 몰래 숨어서 은밀히 하고 있는 그런 訓練이야말로 사실상 우리에게 威脅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不安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北(백남준) : 내가 아까 다 對答을 한 것 같은데요. 아까 내가 對答을 다 했어요.

南(宋漢虎) : 자, 貴側이 지금 얼마나 訓練을 합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重量級의 大規模 軍事訓練을 年間 2번, 때에 따라 4번 하고 있고 또 師團級은 5번내지 6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貴側의 13個 軍團, 50餘個 師團, 指揮所가 다 參與하는 全面攻擊演習指揮所에서 지금 貴側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蘇聯軍하고는 東海上에서 定期的으로 軍事訓練을, 合同軍事訓練을 每年 實施하지 않습니까?

北(백남준) : 어디서요?

南(宋漢虎) : 그런데 貴側은 백先生, 昨年에 어떤 말을 했느냐. 『아, 그거야 親善訪問次 오고 갈때 하는 儀禮的인 儀式節次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강변하지 마십시오. 강변하지 말라고. 이미 蘇聯의 海軍 副總司令官으로 있는 「아틀리·후시미르」將軍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定期的으로 貴側 軍隊하고 일주일 정도 東海上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蘇聯側에서도 다 認定한 이와 같은 것을 貴側이 끝내 감추고 隱蔽하려는 이와 같은 態度야말로 우리에게 威脅을 주고 不安을 자아내는 要因이 된다 이겁니다.

北(백남준) : 날짜를 부르시요, 날짜를.

南(宋漢虎) : 우리는 貴側에 대해서 招請하는 同時에 우리는 貴側이 하는 訓練에 대해서 우리도 招請해 달라 이렇게 要求를 했어요. 그런데 왜 못하고 안합니까?

北(백남준) : 宋先生! 招請한다는 분들, 내하고 마주 앉아서 말이 나갑니까? 말이 나가요?

南(宋漢虎) : 왜 拒否를 해요? 拒否를 왜 하느냐고?

나는 貴側의 拒否理由가 貴側이 하는 軍事訓練의 內容과 性格에 대해서 公開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北(백남준) : 내가 다 말했으니까 一考의 가치도 없어요. 듣고 싶지도 않고. 아까 다 말했어요.

南(宋漢虎) : 왜 貴側이 하는 訓練이 그야말로 攻擊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防禦的인 目的으로 한다며는 왜 公開를 못하고 왜 參觀團 招請을 못 합니까?

北(백남준) : 날짜를 부르시요. 날짜를 부르시요. 아까 우리가 充分히 듣고 내가 對答을 다 했으니까.

南(宋漢虎) : 이제 자기 말은 다하고 남이 答辯하려며는 자기는 듣지 않겠다 그런 態度도 역시 온당치 못하다.

北(백남준) : 아, 아까 그쪽에다 말 다했어.

南(金保鉉) : 자, 주니까 받아야 되니까 말씀을 하시죠.

北(최우진) : 서로 얘기를 다 한 거니까 그 문제는 더이상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節次問題만 討議하면 되는 거예요.

南(宋漢虎) : 하여간 나는 오늘 貴側이 이 會談을 그만하고 다음에 만나자고 한데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節次問題는 전혀 進展을 못보고 討議조차 못하고 貴側이 會談과 關聯없는 팀스피리트問題 또 무슨 있지도 않은 콩크리트障壁問題 이런걸 다 끄집어 내 가지고 우리 節次問題 討議를 拒否하고 回避한 데 대해서 내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事實上 내가 여기 자리에 나올 때는 節次問題에 관해서 오늘 나머지 하나만 있는데 다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表記順序만 決定을 하면 모든 것을 매듭을 짓고 아까 내가 歡談時間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시작한지 1周年이 되는 2月8日에는 서로 合意書에 署名을 하고 交換을 하자 하는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끝내 貴側이 이런 節次問題 討議를 拒否해서 오늘 다시 完全히 會議가 空轉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貴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會談場이 결코 팀스피리트와 關聯한 어떤 宣傳場으로 利用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있지도 않은 콩크리트障壁問題를 들고 나와서 우리의 不必要한 論爭을 유발하거나 또는 우리 雰圍氣를 험악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行動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絶對로 앞으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態度야말로 우리 會談代表로서의 職務를 유기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음번 會談에서는 그러한 態度를 完全히 바뀌서 會談과 關聯이 없는 問題는 이제는 擧論하지 말자는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北(백남준) : 宋先生, 結束을 하자니까 그쪽 날짜 그것 준비하시요.

준비하는데 앞으로는 그 發言에서 相對側을 刺戟하는 이런 얘기는 안 하는게 좋습니다. 그걸 내가 忠告를 하고.

그 다음에 問題討議에서 雙方이 하는 會談인데 相對方이 提起하는 問題에 대해서는 또 相對方으로서 應當히 그것을 인정을 해야 옳은 거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回避를 하고 斷見을 부리면서 그러면서 問題를 다 른데로 끌어 갈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도 지난해 1次, 2次 會談때도 팀스피리트問題 때문에 貴側에 대해서 정말 忍耐와 積極的인 이런 積極성을 다해서 會談場에 나와서까지도 貴側에 要求를 했습니다.

그래서 今年에 우리는 그렇게 좀 理解를 해 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진 우리 會談의 막바지에 가서 이제는 내일모레 도장을 찍게 됐는데 그러면 總理를 團長으로 해서 最高位級이 北과 南으로 오가면서 어찌면 最高位級이 마주 앉아서 얘기를, 저 高位級이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 이런 時期에 와서 이렇게 하니깐 이거 좀 이렇게하면 안 된다.

그러고 貴側에서도 對話와 이게 緊張緩和에 이게 뭐냐하면 影響이 있다 하는거를 認定하는 以上 이걸 今年度에는 하지말라, 이거 中止하면 좋겠다. 이런 要求를 提起를 했는데 貴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건 會談外的인 問題다. 그쪽에서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 問題는 내 여기 記者들이 다왔기 때문에 그 問題는 내가 말 안하겠는데 나는 그 問題와

關聯해서 1時間 程度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南(宋漢虎) : 아 나는 2時間 程度 이야기 할 수가 있어요.

北(백남준) : 예 그러면 내가 1年 삼백예순다섯날을 이야길 할게요. 이 건 우린 관여할 問題가 아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朝鮮사람이 누구의 피를 타고 났는가? 내 얘기를 할게 많은데 이야기를 안하겠습니까, 안하겠는데.

그래서 오늘 이거 會談이 全的으로 이렇게 空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會談이 좋은 霧圍氣속에서 되지못한 이런건 全的으로 貴側에 責任이 있습니다. 貴側에 責任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貴側에서 날짜를 부를 차례니까 날짜를 부르시요.

南(宋漢虎) : 날짜를 부를게요. 3月7日에 하십시다.

北(백남준) : 3月7日? 무슨 曜日이에요?

南(宋漢虎) : 水曜日이에요.

北(유성철) : 그런데 이거 進行 늦지 않습니까?

南(宋漢虎) : 아니 進行이 늦게 잡을게 아니라 실지는 그저 討議했으면 오늘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것은 實質問題討議를 여러분들이 오늘 回避를 하고 괜히 다른 問題를 들고 나와서 뭐 이 會談을 進行하는데 障礙를 造成했기 때문에 이와같이 된것 아닙니까?

北(유성철) : 야 또 뭐 누가 回避를 하고 누가 障礙를 造成했다고…….

北(김영철) : 宋先生! 내 하나 물어봅시다.

南(宋漢虎) : 障礙를 둘 必要도 없고…….

北(김영철) : 그럼 어째, 어째서 한달동안 空白을 造成하자 그럼니까?

南(宋漢虎) : 한달동안 그것에 대해 準備하는 거지요. 이번에 하계꿈 그

렇게 準備를 하시고.

南(朴鍾權) : 김영철先生이 首席代表에게 이야기할 性質이 아니고 이게 團長先生이 이야기할거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한마디 더 얘기하겠는데 이 會談成事를 위해서 그 할 이야기와 範圍를 좀 좁혀야 됩니다.

北(백남준) : 3月 며칠날?

北(최우진) : 7日.

北(백남준) : 水曜日?

北(최우진) : 예 水曜日.

北(백남준) : 3月8日은 저 3.8節이지요?

北(최우진) : 예.

北(백남준) : 3.8節이고 3月9日은 木曜日, 金曜日인가?

北(최우진) : 2月달에 다 걸리죠. 뭐 당기지 않겠다면 그냥 해야죠 뭐.

北(백남준) : 뭐 앞서 당길 수는 없습니까?

南(宋漢虎) : 우리 3月7日에 합시다.

北(백남준) : 3月7日로? 그럼 저 그날 우리가 「팀스피리트 90」 合同軍事演習을 中止한다는 것을 인차 通知해주는 그런 前提下에서 3月7日에 同意합니다. (一同웃음)

南(宋漢虎) : 우리 팀스피리트軍事訓練은 貴側이 우리에게 대한 軍事威脅을 除去를 하면 우리가 아마 中止할 거예요.

北(김영철) : 아 縮小된 規模로 한다는거 하는데…….

北(백남준) : 앞으로는 宋先生 이런 式으로 會談하지 말자.

南(宋漢虎) : 예, 됐어요 됐어.

北(김영철) : 그뭐 더 듣지 못하는거 認定하는데 中止해야 됩니다.

南(金三勳) : 이번에는 뭐 그런 얘기 안하고 다 끝내면 다음번에 도장찍 으면 되는데.

北(백남준) : 도장을 저 원래 전번에 찍었지 뭐.

南(廉弘喆) : 글썄 말이에요. 왜 자꾸 그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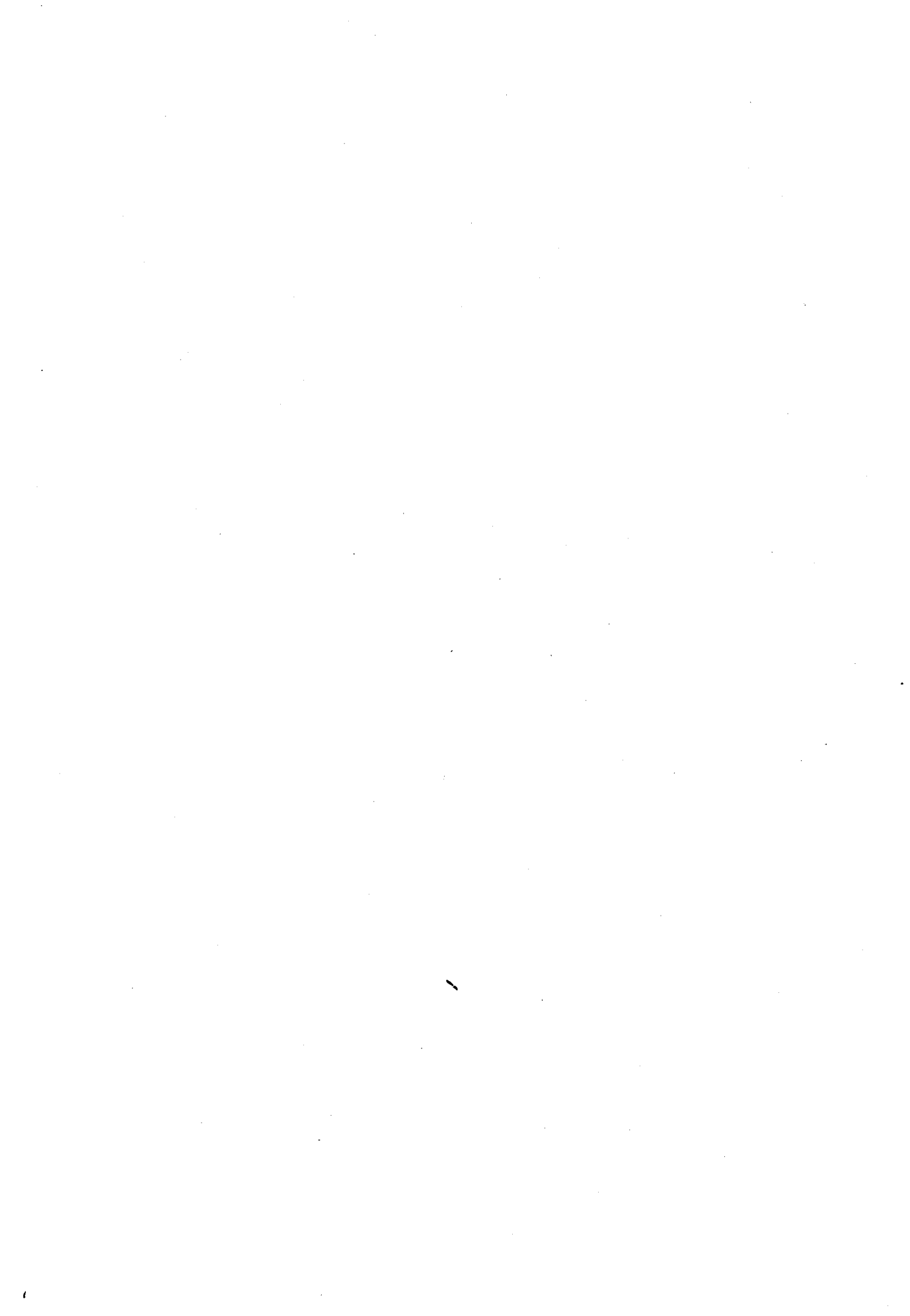
南(金三勳) : 똑같은 이야기를 말하자면 자꾸만 하고 그래요.

南(宋漢虎) : 자, 악수나 하고 헤어집시다. 다음에 다시 만납시다.

〈雙方代表 人事交換後 退場〉

〈附錄〉

代 表 團 記 者 會 見



1. 우리側 代表團 記者會見

- *日時：1990 1.31 (水) 13 :33 ~ 13 :50
- *場所：板門店 우리側地域 「平和의 집」
- *發表 및 答辯：宋漢虎 首席代表

1. 記者會見文

여러 記者분들께서 오늘 다 보셔서 알겠지만 오늘 節次問題는 北韓側이 끝내 討議를 拒否하고 回避를 했기때문에 舉論도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議題의 表記問題만 하나 이것 妥結되면 節次問題 모든 것이 승意가 되어가지고서 總理들간에 高位級會談이 실현될 것인데 北韓側이 끝내 이걸 外面하고 回避를 해서 오늘 會談이 그대로 그냥 空轉된 것을 저는 오늘 대단히 遺憾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北韓側은 이제 基調發言文에서부터 여러분이 다 들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會談과는 전혀 關聯이 없는 콩크리트障壁 問題라든가 協商會議라든가 팀스피리트訓練問題를 들고 나왔습니다.

들고 나와가지고 콩크리트障壁을 우리側이 쌓아가지고 南北間에 自由往來라든가 혹은 社會開放을 막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撤廢를 해야된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을 撤廢하는 前提條件 위에서 自由往來와 社會開放 問題를 協議하기 위한 協商會議를 開催해야 된다. 이 協商會議라는 것은 南北의 統一問題를 實質的으로 解決할 수 있는 救國的인 統一方案이다 이런 式으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會談과 關聯되지 않는 問題는 이제 더이상 舉論

하지 말고 實質問題 討議에 들어가자 하는 것을 여러차례 北韓側에 다가 促求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北韓側은 이것을 繼續 外面하고 그 問題만 가지고 執着하고 우리들한테 대해서 攻勢를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콩크리트障壁問題는 이것은 전혀 우리側에 없다, 北韓側이 말하는 自由往來를 막기위한 어떤 그런 콩크리트障壁이라는 것은 없고 다만 北韓의 탱크部隊라든가 機械化部隊 등의 浸透나 攻擊을 막기위한 軍事的 目的으로 對戰車 沮止用 障物을 設置하고 있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障物은, 따라서 自由往來를 막기위한 것이 아니라 北韓 탱크의 自由往來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施設物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왜 우리가 이와같은 障物을 만들지 않으면 아니되었느냐? 그것은 6.25 때 北韓側이 數百臺의 탱크를 앞세우고서 南侵했기 때문에, 奇襲南侵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軍이 부득이 後退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었다. 그러한 經驗에 立脚해서 다시 이와같은 悲劇이 되풀이 되질 않고 우리의 安保를 보다 鞏固히 確保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로써 이것을, 이 施設物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軍事的 目的으로 만든 施設物에 대해서 貴側이 除去하라느니 무슨 이야기 하는 것은 또다시 앞으로 이와같은 戰車를 앞세우고서 南侵할려는 것과 같은 그러한 意圖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疑心을 우리가 떨쳐 버릴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代表께서도 이야기를 하기를 自由往來를 沮止하기 위한, 막기 위한 障物 콩크리트障壁이라는 것은 없다하는 것은 確實히 證明이

됐다. 지난 1月19日이지요? 19日 우리 國防部에서 內外信 記者들을 다 招請을 해서 여기 西部라든가 中部戰線을 다 가서 確認시킨 結果 記者들도 다 分明히 그것이 自由往來를 防止하기 위한 施設物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軍事的 目的으로 設置된 障礙物이라 하는 것을 거기서 確認했기때문에 그것은 貴側이 主張하는, 北側이 主張하고 있는 것은 아주 허무맹랑한 억지다 하는 趣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北韓의 協商會議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러한 것을 과거 수십년동안 北韓側이 主張해오던 이른바 南北政治協商會議라든가 連席會議의 再版에 不過하고 아무런 새로운 內容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南北間에 實質의인 어떤 主要 懸案問題는 當局間에 對話와 協商을 통해서 解決할 수 있는 것이지 무슨 政黨이 나서가지고서 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趣旨에서 우리 盧泰愚大統領께서 지난 1月10日날 年頭記者會見을 통해서 不必要한 前提條件이 있지만 北韓이 提起하고 있는 自由往來라든가 社會開放問題는 좋은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南北韓 當局이라든가 혹은 最高當局者會談을 통해서 그 問題를 協議하자 그랬으니까 北韓側이 進정으로 自由往來라든가 社會開放에 대해서 關心이 있다면 그 當局間的 對話에 나와라. 當局間的 對話에 나오지 않으면서 또 다른 무슨 政治協商會議를 云云하는 것은 결코 北韓側의 自由往來라든가 社會開放을 위한 意志를 우리는 認定할 수 없다. 그런 趣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탐스피리트訓練과 關聯해서 北韓側이 昨年 2月과 3月달에 열렸던

第1次 豫備會談과 2次 會談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그저 그대로 되풀이 했습니다.

그리고 2차 會談때 北側이 들고 나왔던 이른바 3個 緊急提案이라는 것을 내와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있는 팀스피리트訓練을 卽刻 中止 하라든가 또는 韓半島에 들어온 武器와 部隊를 당장 撤收하라든가 또 訓練을 할려면 美國을 제쳐놓고 韓國軍 獨自의으로만 하라 이런 식의 提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北韓側은 우리가 하고 있는 팀스피리트訓練은 北韓側을 攻擊하기 위한, 侵略하기 위한 무슨 戰爭演習이다, 豫備戰爭이다 이런 趣旨의 옛말, 과거의 했던 이야기를 그저 錄音을 들어놓는 形式으로 거의 다 되풀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北韓側 主張의 不當性을 여러가지 根據를 내세워 가지고 反駁을 했습니다.

사실상 팀스피리트訓練이라는 것은 防禦目的으로 그리고 公開的으로 하는 訓練이고 年例的으로 하는 訓練이다. 訓練에서 問題가 된다면 公開的으로 하질 않고 秘密裡에 몰래 하는 것이 더 오히려 威脅을 주고 緊張을 더 자아내게 하는 하나의 要因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攻擊을 目的으로 하는 訓練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防禦를 目的으로 하는 訓練이라는 것을 밝혔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北韓側이 우리 말을 믿지 못하고 侵略을 위한 戰爭으로 생각을 한다면 參觀團을 우리가 招請을 했으니까 거기 가서 直接 確認을 하라. 參觀團의 招請에 응하지 않고 一方的으로 그렇게 非難하는 것은 올바른 態度가 아니다.

그레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蘇聯이 東歐羅巴의 여러나라들과 오래前

부터 合同軍事訓練을 實施하면서 西歐羅巴의 軍事參觀團을 招請한 例라든가 혹은 西歐羅巴에서 하고 있는 補助軍事訓練에 대해서 參觀團 招請을 受諾해가지고 「바르샤바」條約國家들의 軍事任員들이 다 가서 參觀했던 例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招請을 했으니까 北韓側도 北韓에서 하고 있는 軍事訓練을 公開를 하고 또 招請을 하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北韓側에서 하는 軍事訓練을 軍團의 경우는 每年 2~4번 하고 師團의 경우는 5~6번정도 이렇게 大規模 軍事訓練을 몰래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는 全 師團 50餘個 師團과 13個 軍團의 指揮所가 다 參加하는 全面攻擊 指揮所演習 같은 것도 몰래 하고 있다.

그리고 北韓側이 蘇聯과 東海上에서 하고 있는 合同軍事訓練을 그야말로 軍事訓練 하는 것 自體를 認定을 하지 않고 그것은 무슨 親善訪問次 오고갈때 뭐 행해지는 親善儀式이다 이런 식으로 軍事訓練 自體를 否認하고 있고 是認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指摘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 記憶하겠지만 昨年 2월달에 蘇聯의 海軍 副總司令官 「아나톨리·구스민」中將이 1週日 程度 東海上에서 定期的으로 每年 北韓側 軍隊하고 訓練을 하고 있다 이렇게 是認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蘇聯側에서 是認한 것 조차도 너희가 이렇게 否定을 하고 認定하지 않는 그런 態度야말로 事實상 不安, 우리에게 不信을 深化시키는 要因이 된다. 이런 것을 指摘을 하고 그래서 北韓側이 招請을 하라 하는 것을 제가 다시 強調를 하고 招請하지 못하는 理由가 있다면 北韓이 하고 있는 訓練의 性格과 內容에 대해서 뭔가 公開하지 못할 어떤 땀땀하지 못한 무엇이 있는게 아니냐? 만일 攻擊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防

禦를 目的으로 하는 것이라면 왜 公開를 못하며 왜 招請을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指摘에 대해선 北韓側은 繼續해서 역시 그네들이 우리의 訓練이 攻擊을 위한 것이다, 侵略을 위한 戰爭準備다 이런 식으로 固執하면서, 主張을 하면서 역시 전혀 節次問題 討議에 呼應해 나올 立場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北韓側도 그런 問題와 關聯해 가지고서 한 3~4時間 오늘 會談을 한 결과 더 이상 進展이, 論爭을 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北韓側에서 먼저 더 이상 이 會談을 그만두고 다음 날짜를 정하자 그래서 제가 3月7日 다음 7次 豫備會談을 갖자고 提議를 해서 北韓側이 거기에 同意를 했습니다.

그래서 3月7日에 7次 豫備會談을 가질 豫定으로 있습니다.

별로 充分치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들으시고 보신 그런 內容이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제가 說明은 끝맺고 여러분들께서 혹시 質問하실 것 있으면 물어 주시지요.

2. 質疑·應答

質問: 날짜를 3月7日로 정했는데 3月7日이랑게 팀스피리트 實施되기 前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또다시 오늘과 같은게 또 되풀이 되지 않겠습니까?

答辯: 제가 이제 會談의 매듭을 짓고 다음 날짜를 정하자고 할 때에 제가 北韓側에다가 主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會談이 아무런 成果

없이 空轉한 것은 北韓이 會談과 關聯없는 팀스피리트訓練 問題, 있지도 않은 콩크리트障壁 問題, 이른바 協商會議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와서 節次問題 討議를 拒否했기 때문에 空轉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會談空轉責任은 全적으로 北韓側에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다음부터는 絶대로 會談과 關聯없는 問題를 들고 나오지 말고 막바지 段階에 있는 節次問題 討議를 하자 그렇게 제가 強調를 하고 促求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北韓側의 백團長이 그 다음 날짜를 정하면서 이야기할 때 팀스피리트訓練을 中止한다는 通報가 오는 것을 前提로 해가지고 다음 날짜를 박자 그런 趣旨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北韓側이 3月7日에 오늘 約束한대로 나올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제가 장담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北韓側이 그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한 일년동안 애써서 成事시킬려던 總理들간의 高位級會談을 成事시킬려는 意志가 있다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期待를 합니다. 또 그러한 期待와 함께 오늘과 같이 會談을 空轉시키는 그런 行爲는 하지 말고 그야말로 우리 豫備會談 代表에게 맡겨진 基本使命에 맞게 節次問題討議에 전념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質問: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럼 結局은 3月7日로 우리가 날짜를 정한건 北쪽에서 다음 對話에 임하는 姿勢를 말하자면 이번 계기로서 테스트 해보는 그런 意味를 갖고 있는 겁니까?

答辯: 그런 意味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달 내지 40日 間隔으로 이제 다음 會談 날짜를 정했기 때문에 대체로 그런 慣例에 따라서 우

리가 적절한 날짜 1週中에서 火曜日날은 대체적으로 피하고 月曜日날 좀 피하는 그런 慣行이라 할까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水曜日날 3月7日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3月7日 提議를 했던 것이고 뭐 特別한 意味는 賦與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質問: 물론 뉴앙스의 差異라 보는데 말입니다. 지금 北側의 代表 백남준 代表가 記者會見을 통해서 確實히 밝힌 事項은 우리側의 세가지 要求事項을 前提로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하면 팀스피리트訓練을 中止해야 된다. 또 하나는 거기에 우리 外國軍, 美軍部隊의 裝備가 撤收되어야 한다. 또 軍事訓練은 外國軍하고 合同訓練은 안되고 自體的인 軍事訓練은 可能하다. 그런 세가지 前提條件이 돼야지 다음 會談에 응하겠다 그렇게 分明히 못박는데 그것을 우리側에서는 다른 角度로 또 解釋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過程을 分明히 해주시지요?

答辯: 그 이야기는 昨年 3月2日날 第2次 豫備會談이 있을 때 北韓側이 이른바 3個 緊急提案이라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한 것은 2次 會談때 했던 것을 되풀이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와 같은 主張은 소위 아무런 合理性을 우리가 認定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거야말로 어거지가 아니겠느냐? 자기네들은 軍事訓練 몰래하고 戰鬥部隊를 攻勢의으로 前進配置한 狀況속에서 그건 다 제쳐놓고 相對方이 하고 있는 年例的으로 그리고 또 防禦的인 目的으로 하고 있는 軍事訓練에 대해서 그렇게 是非하고 뭐 前提條件 비슷한 要求를 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다, 行爲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끝낼까요? 感謝합니다.

2. 北側 代表團 記者會見

- * 日時：1990.1.31(水) 13:05 ~ 13:24
- * 場所：板門店 北側地域 「統一閣」앞
- * 發表：백남준 團長

1. 記者會見文

오늘 6차 회담,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위한, 마련하기 위한 예비회담 6차 회담이 진행 되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먼저 남측에서 발언을 했는데 남측에서는 실무절차 문제에서 아직 최종 결속을 보지 못한 의정정리문제를 비롯해서 일련의 문제들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로서는 마지막 고비, 우리 회담의 마지막 고비였습니다. 그저 의정문안만 정리를 하면 우리 예비회담이 끝나고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북남고위급 대표단이 평양과 서울을 오가면서 접촉하고 쌍방에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 되게끔 이렇게 되어있는 막바지입니다.

막바지인데 이걸 며칠 남겨놓고 남측에서는 미국과 함께 또다시 「팀스피리트 90」 합동군사연습을 한다는 것을 발표했고 이미 그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로 이렇게 접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그런가? 올해 연두기자회견에서 남측 최고위당국자는 말하기를 남북대

화를 위해서 남북사이의 긴장완화를 위해서 「팀스피리트 90」 합동군사연습의 규모를 축소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이 「팀스피리트 90」 합동군사연습이 대화 부정적이고 전쟁 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남측이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대화의 장애로 되는 것이라고 하면 「팀스피리트 90」 합동군사연습을 금년부터는 하지 말아야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측이 「팀스피리트 90」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조건에서 실무절차문제 토의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제를 제기 했는가?

우리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북과 남이 분단의 장벽을 마시고 북과 남이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할데에 대한 제안을, 새로운 평화통일방안을 내놓으시고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해서 북과 남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를 소집할데에 대한 뜻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남측에선 이걸 이와 관련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에 대한 회답을 지금 검토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내일쯤 그 회답이 우리한테 넘겨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우리가 제기한 새로운 획기적인 평화통일방안에 대해서 환영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뒤로 들려오는 상서롭지 못한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남측에 우선 내용을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측의 대답이 그겁니다.

첫째는 뭔가? 들려오는 말이 뭔가? 남측이 남측지역에는 콘크리트장벽을 쌓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콘크리트장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탱크 차단물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가지로 리유와 리치에도 맞지 않는 그런 주장하면서 그것을 계속 부인해 나왔습니다.

이것은 눈을 감고 아옹하는 격으로 이것은 매우 서투른 위장술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고 엄연히 존재하는 콘크리트장벽을 허물고 북과 남이 어떤 차별과 제한도 없이 자유래왕을 하고 그다음에 정치·경제·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전면개방을 실현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제안한 협상회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다시금 그쪽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틱스피리트문제와 관련해서는 남측에서 틱스피리트는, 이것은 말하자면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훈련이고 이것은 방어적인 훈련이다. 그렇게 하면서 아무런 공격성도 없으며 아무런 침략성도 없다는 것을 고집해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틱스피리트가 이게 공격전이 아니고 침략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동시에 이것이 우리 쌍방 우리 회담에서 논의할 문제도 아니고 회담외적인 문제고 우리가 간섭할 필요가 없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남측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명백히 우리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철저하게 「틱스피리트90」은 그 발단과 15년간에 걸쳐서 전과정 자체가 실증하는 바와 같이 철저하게 우리를 반대하기 위한 예비전쟁이고 우리 조국강토를 폐허로 만들고 동족을 아예 잿더미 희생물로 만들 이런 핵실험 시험전쟁이다. 명

백히 그렇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그쪽에선 지금 방어훈련이 다 공격훈련이 아니고 방어훈련이다 하는 것은 뭔가하면, 우리가 공개를 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참가 초청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그 자체가 위장이다 그건 방어훈련이다, 공격훈련 방어훈련이라고 하는 그건 위장이다. 그걸 우리가 너덧가지 문제로 우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뭔가 그쪽이 공개진상이 무엇인가?

첫째로는 규모를 조작축소해 발표한 것이고 공개한 거다. 말하자면 18만 명을 가지고 한다 이런 규모로 축소한다 했어도 실제로는 이 계산에다가 지원부대와 보장부대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 바로 규모축소의 공개다 공개의 진상이다.

다음에 기간문제입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3월 14일부터 2주일동안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뭔가 이것도 역시 이동단계, 전개단계, 복귀단계를 빼놓고 실동단계만을 발표한 겁니다.

15년동안에 역사가 정월말부터 4월말까지 한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것인데 바로 남측의 공개라는건 이겁니다 이게.

다음 세째로는 뭔가 이 훈련, 이 훈련을 실황중계는 못한다 텔레비 보도는 못한다 그런 조건에서 보도를 한다 이것 뭔가? 이게 공개고.

그다음에 공개진상이 뭔가? 공격을 방어훈련이라고 발표를 한거다 그게 공개입니다.

이런 말하자면 얇은 수로씨는 그 침략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을 위장할 수가 없다는데 대해서 못 박아 말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남측의, 철저하게 남침이 우리한테는 없고, 북침할 야

망이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우린 강조 했습니다.

여기 기자선생님들 계시지만 남측은 철저하게 우리 남침이 없다는 것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해서 북을 칠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로 그것을 실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런 증거로써 어째서 수많은 평화방안을 내놓았는데 우리가 위협이 된다면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느냐 왜 조선반도를 비핵평화지대라고 하는데 왜 이걸 받아 들이지 않느냐? 이것은 바로 뭔가? 또 그다음에 연방제 우리방안을 내놓았는데 연방제 방안을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우리 위협이 된다면 이것은 벌써 뭔가? 남측이 남침위협이 없다는 것을 자체는 인정하면서 선전으로 써온 낡은 보따리다 이거예요. 낡은 보따리예요.

그리고 그다음 동시에 뭔가 우리가 평화방안 냈는데 이걸 접수하지 않는건 뭔가 북침의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숨기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걸 우리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관초청문제와 관련해서 참관초청이란게 뭔가? 우리 정전상태에 있는 쌍방간에 참관초청이란게 레의에도 맞지않고 그런 관례도 없는 것이고 아주 무례한 행동이란데 대해서 말했고 참관초청을 안해도 현대과학의 시대인데 우리는 앉은 자리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잔꾀다 서투른 연극이다. 이렇게 우리는 못박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남침위협 있는게 아니라 북침위협이 있는 것이며 동시에 또 뭔가 이 회담이 우리 회담에서 팀스피리트훈련 토의할게 못된다 이렇게 하는데 왜 토의할게 없는가, 못 되는가? 미국하고 함께 동족을 치

는 전쟁인데 그저 응당이 우리는 뭔가 우리회담 대표단의 사명을 볼 때 정치·군사적문제를 해결하자.

대표단이기 때문에 응당히 토론해야 되고 조선민족으로서 상대측 당국자들이 미국하고 함께 우리동족을 반대하는 우리자신의 가슴팍에 총을 들이대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이 문제 토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이 회담이 귀중하고 회담의 장애가 된다고 하면서도 이걸 강행하려는 이런 태도와 관련해서 우린 응당히 이걸 논의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으며 요구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남측은 이와 관련해서 오늘 회담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내놓은 방안에 대해서 그저 회피하고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니까, 자꾸 판데로 문제를 돌려 가지고 하면서 대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주지 않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결국 오늘은, 그러면서 우릴 걸고 들고 아주 오늘 회담에선 이런 말하자면 좀 그런 분위기도 있었었습니다.

아주 온당치 못한 태도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속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내놓은 옳은 요구라는게 첫째로는 「팀스피리트90」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그다음에 「팀스피리트90」을 위해서 조선경내에 들어온 미국군대와 군사작전 장비를 즉시 철수시키는 조치를 취하라. 그다음에 셋째로는 최소한 군사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일체 외국군대의 참가없이 남조선 군대만 가지고 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이 세가지, 세가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문제와 관련해서 남측의 입장을 표명해야 될 남측은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불필요한 이런 문제들을 이제 가지고 걸고들고 이렇게 돼서 오늘 회담은 공전이 되었는데 그 책임은 철저히 남측에 있다는데 대해서 명백히 못박아 말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 다음번 이제 7차회담입니다. 7차회담 날짜는 우리측으로서는 남측에서 먼저 불렀는데 3월 7일 하자 우리측으로서는 좀 앞당겨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자꾸 한달이상씩 이렇게 하겠는가 좀 앞당길 수 없는가? 그건 다른 사정이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남측이 부른 날짜에 우리가 동의를 줬는데 동의를 주는 것은 「팀스피리트 90」을 중지한다는 것을 인차 우리측에 통보하는 전제하에서 3월 7일에 7차회담을 가지는데 동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 質疑・應答

質問: 통보의 마감시기는 언제입니까? 그 중지한다는 팀스피리트훈련을 중지한다는 통보의 시기적인 기한은?

答辯: 인차해달고 했습니다. 곧 해달라.

答辯(김영철): 빠른 시간내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質問: 3월 7일까지 팀스피리트훈련 연기한다는 통보가 없으면 3월 7일 회담은 무산될 수도 있는 겁니까?

答辯: 그것은 전적으로 태도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質問: 일본 교도통신인데요, 이번에 주한미공군에 일부 철수하고 기지폐쇄가 발표되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다?

答辯 : 우리 개성에 나와서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군대도 뭐 2,000명인가 얼마한다 92년부터 뭐 몇년동안에 한
다 그랬는데 저의 입장은, 저의 입장에 대해서 말한다면 미국은 우리나라
에 들어온 불청객입니다. 불청객이다.

에당초 조선에 존재할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존재가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그런식의 무슨 철수요 무슨 감축이요 하
는 것을 그것은 한갓 「제스처」다, 「제스처」다 우리의 요구는 뭔가 즉
시 무조건 전반적인 축소를 주장합니다.

答辯(김영철) : 2,000 명을 철수하는 대신에 다른것을 강화하기 위한 다른
무엇이 없을까요?

質問 : 3월 7일 이전에 팀스피리트 중지한다 하는 통보를 먼저 해주는 전
제하에 3월 7일 회담을 합의를 하셨다고 했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팀스피리트를 강행한다면 3월 7일에는 회
담을 안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느냐고요? 간단하게.

答辯 : 그것은 아까 대답을 했는데.

質問 : 조금 애매하게 대답을 하신것 같은데?

答辯 : 애매하게 대답하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答辯(김영철) : 그건 우리한테 달린게 아니라 남측에 달려 있어요.

答辯 : 저는 남측에 달려 있다 그것은, 남측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남측에 가서 물어보면 압니다. 그리고 여기 기자선생님들 한테 내가 마
지막으로 또 한가지 좀 통보해 드릴게 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남측이 말하자면 동구라파에서 일어나는 사태들 있지 않

습니까?

동구라파 사태에 사태들에 대해서 매우 긍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부러워하고 공감하면서 뒤를 내는가, 거기서도 개방하는데 이거 우리 북남 간에도 개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이런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북과 남의 개방문제는 동구라파에서 하는 그런 개방과 다르다 북과 남이 개방문제라는 조선에서 개방문제라는 건 북남관계 개방문제다, 북남관계 개방문제지 동구라파 같은 그런 개방문제 아니다. 우리는 우리는 개방할 것도 없고 개혁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조선에서 개방문제는 북과 남의 개방문제다. 그런데 이 개방이 왜 안되며 왜 자유래왕이 안되고 전면개방이 안되는가?

이것은 남측이 바로 저런 분단의 콩크리트장벽을 쌓아놓고 있고 그다음에 뭔가 하면 국시가 바로 무엇이나 하니까 분단이고 바로 무엇이나 하니까 두개조선의 분열정책이 말하자면 공식화된 정책이고 그다음에 무엇인가 하니까 왕래의 창구로써의 창구일원화 이런등등 이 모든 것으로 해서 북과 남이 개방이 안되는 겁니다.

이제 개방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하면 남측이 폐쇄적인 이런 체제에서 대담하게 벗어나서 폐쇄장치를 버리고 북과 남이 자유롭게 래왕하고 전면개방할 수 있도록 모든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 했습니다.

그것 하나 더 첨부 합니다.

다른게 없으면 그만 하겠습니다.

